

Haus

09

World Haus Of Matters
Issue #002
"50 Years of Hip-Hop"





James Dewitt Yancey a.k.a. J Dilla
1974 - 2006





Jun Seba a.k.a. Nujabes
1974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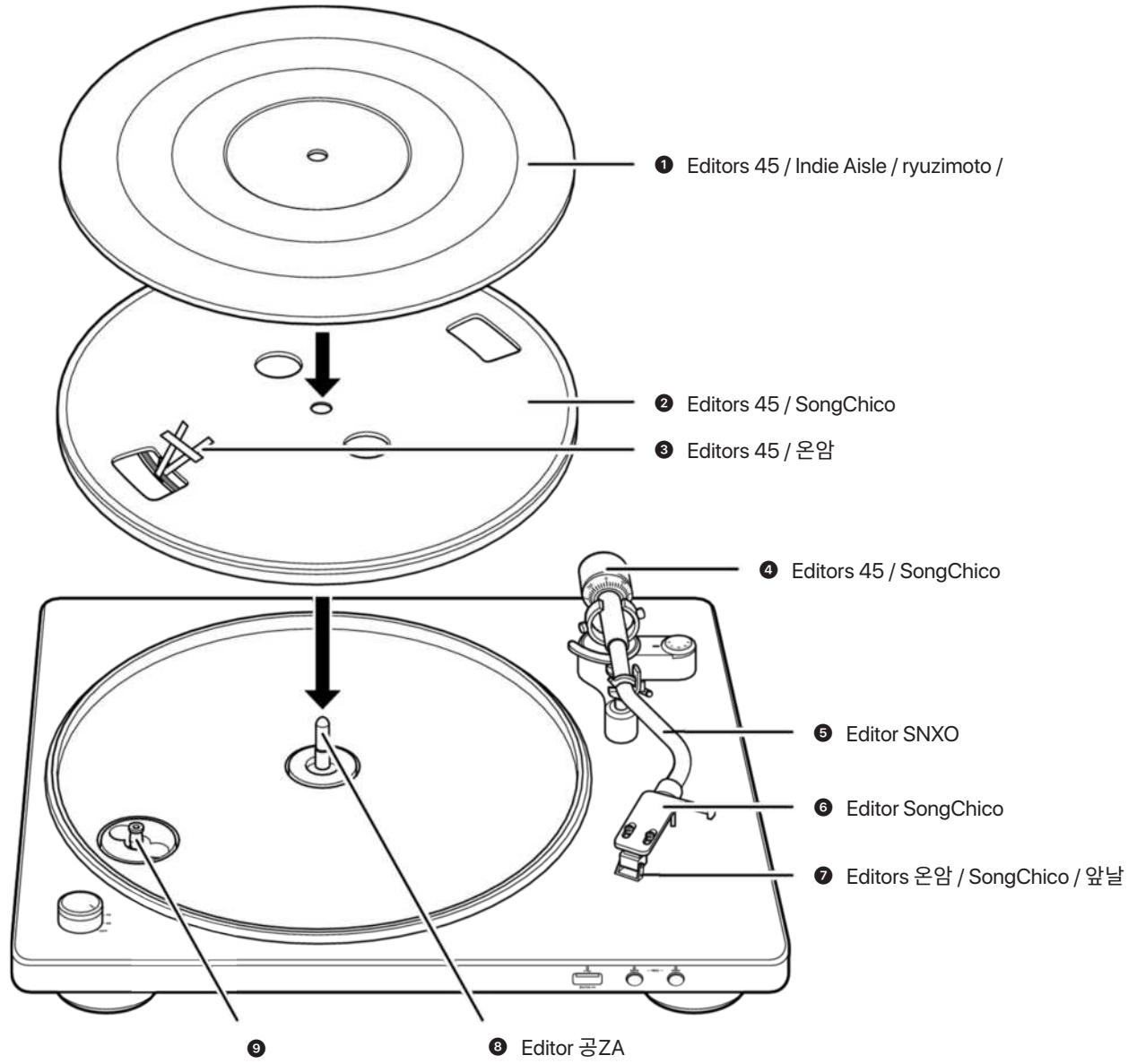


WHOM Instruction Manual

HAUS

Contents // Credits
목차 // 크레딧

월드 하우스 오브 매터스 002호 읽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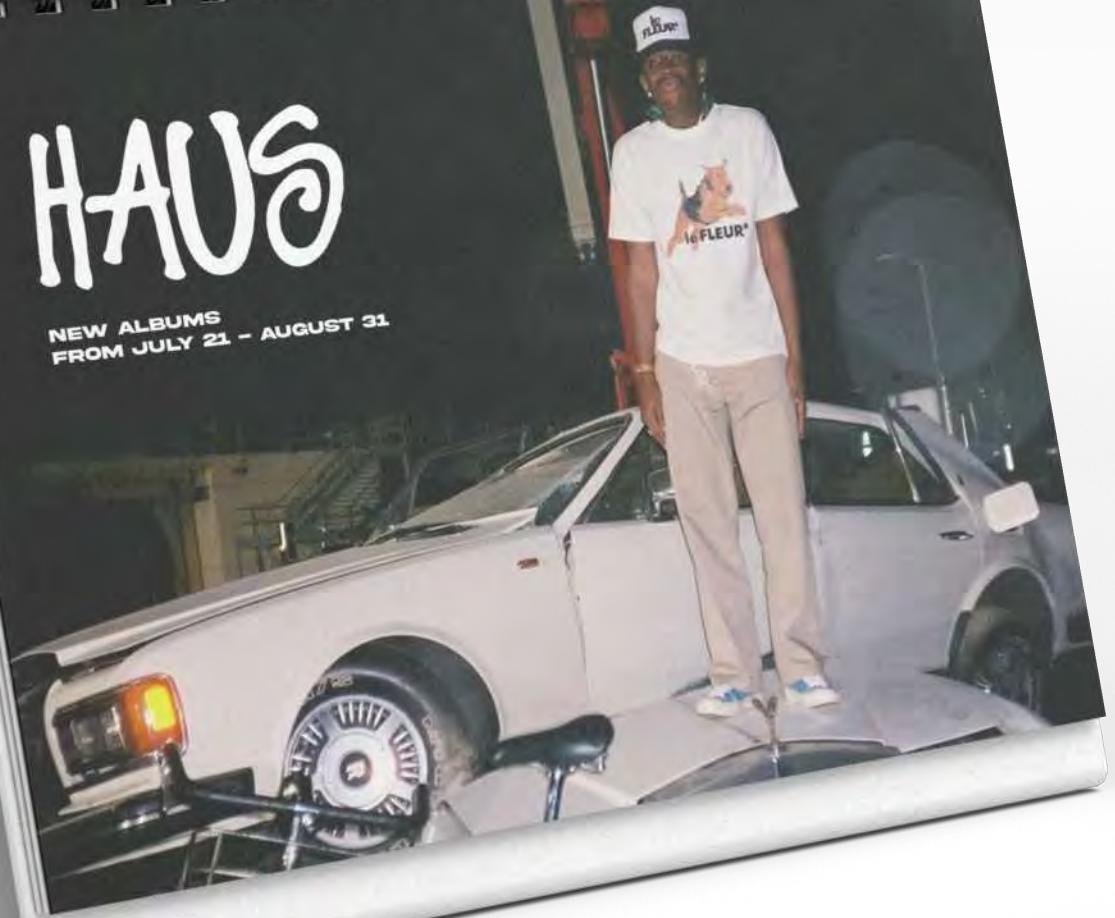


World Haus Of Matters 002 Manual

- ① 앨범 소개 / ② 앨범 풀 리뷰 / ③ 과거 명반 소개 / ④ 뉴 재즈 (New Jazz)
- ⑤ 칸예 웨스트와 단테의 <신곡> / ⑥ 릴 야티의 진화론 / ⑦ 힙합 50주년 / ⑧ 우�팝 줌터뷰 / ⑨ 에디터스 픽 / and... LECRITIC

HAUS

NEW ALBUMS
FROM JULY 21 - AUGUST 31





07 21 2023

Mid Air Paris Texas

Editor 앞날

“Who wanna rock?”, “Who wanna roll?”, “Who wanna die?” 첫 정규 앨범, 첫 트랙부터 파격적인 가사로 시작하는 이 듀오는 Louie Pastel과 Felix, 바로 파리스 텍사스 (Paris Texas)다. 노이지 한 파워코드와 튕는 베이스 라인, 말장난 다분한 가사들 그리고 종독성 있는 흙으로 무장한 그들의 데뷔 정규 앨범 <Mid Air>는 과연 어떤 앨범일까?

이들이 시도한 장르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랩과 록을 결합한 “랩 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랩과 록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많았고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 사례도 존재한다. 과거의 비스티 보이즈와 최근에 해체한 브록햄튼이 대표적이다. 물론 실패한 사례도 많다. 랩과 록의 경계선상의 흐름이 불분명하거나 이질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파리스 텍사스가 선택한 것은 그 경계선의 혼돈이다. 이리저리 튕는 비트 속에서 잔뜩 뒤틀린 보컬을 듣고 있다면 본인도 모르게 그들이 제공하는 혼돈 속에 서서히 빠지는 기분이 들지도 모를 일이다. 불쾌함과 복잡함의 혼돈을 제공하지만 비롯된 에너지는 생각보다 상당하며, 자극적이다. 아마 누군가는 폭력적이고, 정신없으며, 둔탁한 비트와 우스꽝스러운 가사에 헛웃음을 지을 수도 있겠다. 혹은 그들과 함께 혼돈을 즐기거나.

우선 그들의 공중 점프는 어디로 될지 모르니 일단 홀날을 기대해 보자. 더 높이 향할 것인지, 혹은 추락할지는 오직 그들만이 알 테니까.



07 28 2023

AUSTIN Post Malone

Editor Indie Aisle

포스트 말론(Post Malone)의 5번째 스튜디오 앨범 AUSTIN 안엔 지극히 개인적이고 목가적인 인상이 침잠되어 있다. 오토툤의 가감, 어쿠스틱 기타의 노스탈지어는 흡사 세월의 연가를 담은 듯 포스트의 개인성 자체를 겨냥한다. 그 AUSTIN이라는 이름이 새긴 경험의 축적부터 에피소드의 발화까지, 그만의 열은 환희가 청렬한 음색 안에 흐릿한 궤적을 그린다. 그 흐릿한 궤적의 장점과 단점이 말론의 5집 안에서, 그 이름만큼이나 개인적인 방식으로, 가벼이, 변혁을 균열시킨다.

AUSTIN에는 포스트 말론만의 특징적이었던 과한 오토툤도, 도시도, 차가운 질감에 대한 실마리도 포착되지 않는다. 오히려 잔잔하고 평탄하기까지 한 감정의 구조화가 그의 음악 세계에서 기묘스런 위화감을 자랑하는 듯하다. 커버를 시각화하듯 한적한 분위기는 그간의 퇴폐와 도심을 뒤엎고 경편한 얼터너티브 록의 공기가 수영장을 뜨끈히 데운다. 다소 경편하고 추진력 없는 곡들의 나열임에도 이 앨범을 즐길만 한 이유, 포스트 말론의 변화는 그의 그 어느 순간보다 따스한 감정의 발산 요소이다.

논할만한 점은 얼터너티브 록 도입을 비롯한 오토툤 과용의 부재이지만, 그로 인한 특색의 부재와 완성도의 상실은 앨범 전체를 진행하는 하나의 힘을 포기한다. 마름질 된 무의미의 반복이지만 동시에 AUSTIN은 확실한 행복을 논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포스트 말론은 다소 흐릿하지만 분명한 궤도의 ‘개인’을 추억하는 것 같다. 그건 AUSTIN POST라는 그 이름을 담은 것처럼 분명 만족스럽고 화창한 추억일 것이다. 아마 AUSTIN보단 Post Malone으로 더 불렸을, 인간 어스틴 포스트의 가장 행복한 자기회상이다.



08 03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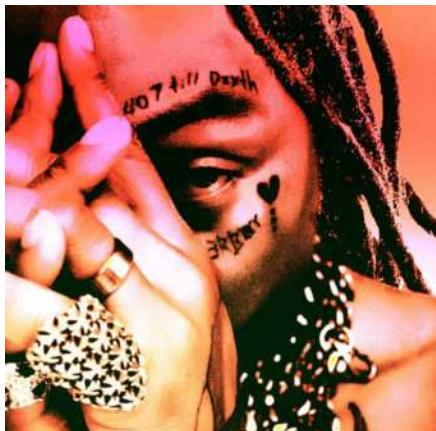
Not a Dream But a Controlled Explosion Iceboy Violet

Editor ryuzimoto

암흑으로 뒤덮인 우주 속의 희미한 유령처럼 부유하는 아이스보이 바이올렛(Iceb0y Vi-olet)은 래퍼보다는 과학자에 더 가깝다. 장르의 바운더리를 불안정하게 허무는 방식으로 언제나 도발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가 이번에도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한 듯하다. 지난 8월 3일 발매된 정규 앨범 <Not a Dream But a Controlled Explosion>를 통해서 말이다.

혼란스럽지만 더 강력하게 빠져드는, 마치 블랙홀 같은 매력을 가진 바이올렛은 현실에 대해 주관적이며 동시에 뚜렷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 시선은 “우리가 갈망하고 동경하며 꿈꾸는 삶의 모습들은 존재하지 않는 환상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바이올렛은 모호한 가사와 흐릿한 랩 퍼포먼스를 선택했다.

마치 실종된 우주선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 같은 희미한 비프음이 담긴 인트로 “Not a Dream”은 긴장감 있는 전조이다. 시작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은 충격적인 광경들을 어느새 마주할 것이다. 그 모습들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엔 난해하지만, 굳이 해보자면 ‘아방가르드’, ‘그로테스크’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이에 걸맞게 ‘무중력 그라임(Weightless Grime)’이라 일컫는 장르가 담긴 트랙 “Black Gold”를 필두로 기괴한 댄스홀 리듬이 돌보이는 “Ekkipse”, 어지러운 앰비언트의 “Paris, Bradford”를 포함한 16분의 러닝타임은 짧지만 압도적인 프로덕션으로 가득 차 있다.



08 04 2023

Heart Full of Rage 2 Tyla Yaweh

Editor 45

로스앤젤레스에서 포스트 말론(Post Malone)에게 선택을 받았던 아티스트다. 2018년 연달아 낸 싱글들이 수백만 회가 스트리밍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행보는 주목받았다. 하지만 2019년 “Heart Full of Rage” 앨범 이후 포스트 말론과 함께한 싱글 “Tommy Lee” 말곤 딱히 임팩트 있는 활동도 없었고 4년간 조금씩 싱글만 냈다.

전작이 알앤비 향이 짙은 트랩 앨범이었다면, 이번 앨범은 한 가지 장르로만 설명하는 없는 다채로운 앨범을 그려냈다. 레이지, 이모, 락, 알앤비, 트랩, 팝 등 여러 장르들을 이질감 없이 락을 기준 삼아 융화했다. 강렬한 인트로로 시작하는 ‘Release Ya Spirits’, 여름 느낌이 충만한 일렉기타를 담은 ‘SUMMER VIBES’, 전작 느낌의 힙합과 알앤비를 적절히 섞은 ‘Hips Don’t Lie’와 ‘City of Dreams’까지 한 앨범에 여러 바이브를 담았다.

락을 기반한 사운드 밑에 은은하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알앤비 힙합의 향, 통통 튀기는 베이스 기타 생각보다 새롭진 않지만 대중적인 사운드로 다가온다. 여름 느낌과 청량한 보컬 그 위 사랑 노래까지 말이다. 전작 또한 듣기 좋았지만 확실한 색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작을 통해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줬으며, 여러 장르를 대중적인 사운드로 소화함으로써 단순 ‘래퍼’가 아닌 ‘팝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줬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 번 꺼내서 들을 정도의 앨범은 아니지만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꺼내 듣는 담백한 이지리스닝 앨범으로 최적의 앨범이다.



08 18 2023

Rocket Power Quavo

Editor 45

작년 테이크오프(Takeoff)의 죽음으로 2010년대 트랩의 주역이던 미고스(Migos)는 사실상 해체가 됐고 힙합 팬들의 암울한 시간이 됐다. 그동안 가사 속 ‘마마’라는 애드립을 빼고 무임승차한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2021년 <Culture 3>를 기준으로 그룹 내 영향력을 꾸준히 키워갔으며, 결과적으로 오프셋(Offset)과의 비프로 퀘보와 테이크오프가 둘이서 활동하면서 두 형에게 가려져있던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하지만 세상 야속하게 아직 피지도 않은 피고 있는 꽃이 시들어버렸고, 퀘보는 앨범 이름을 <Rocket Power>로 만들며 하늘에 있는 테이크오프를 위한 앨범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어두컴컴한 우주같이 다크한 분위기의 앨범 전체를 은은하게 펴진다. 또 컨셔스한 가사를 통해 스토리텔러로써 앨범의 유기성을 단단히 한다. 가족보다 더 두터운 형제의 죽음이나 때문인 것 같아 우주같이 어두운 죄책감에 잠기며 마약에 몸을 기대게 된다. 테이크 오프에 대한 생각은 퀘보를 점점 조여오고 더 고통스러워한다. 결국 한심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슬픔을 원동력 삼아 그의 노래에 모든 걸 쓴 걸 보여준다. 이번 가사들을 통해 트랩답지 않은 컨셔스함을 보여주며 동시에 앞으로 솔로로서의 기량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전체적으로 사운드를 덜어내며 곡내 장치들이 하나하나 눈에 띄게 돋보인다. 울려 퍼지는 사운드들은 깊은 고뇌를 표현한듯하고, 울려 퍼지는 사운드 사이에서 신스와 보컬들은 매일 밤을 그를 괴롭혔던 테이크오프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다. 어두운 사운드 속 간간이 비치는 나팔소리는 다시 힘차게 나아가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 ‘Galaxy’에선 댄스홀을 ‘Stain’에선 이트(Yeat)에서 영감을 받은 레이지와 뉴재즈 사이의 비트를 통해 트렌디함도 잡았다. 슬픔을 뒤로하고 5년전 퀘보보다 기량이 발전한 것을 미뤄보아 앞으로의 커리어가 기대된다.



08 18 2023

Struggler Genesis Owusu

Editor 앞날

호주의 한 아티스트 제네시스 오우수(Genesis Owusu)가 정규 2집 <STRUGGLER>가 8월 18일 발매했다. 전작 <Smiling with No Teeth>에서 어떤 변화를 꾀했는지, 기존의 덥수룩한 드레드 머리도 밀고 반삭인 채로 머리에 붉은 선을 그으며 이미지 변신을 노린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먼저 그의 신규 앨범의 성격을 보자면, 전작이 알앤비, 힙합, 흥크(Funk) 요소들을 신디 음으로 버무린 앨범이나, 이번에는 신스 팝과 펑크(Punk) 적인 요소가 부각된 조금 더 락에 가까운 음악들을 선보이는 것이 주 특징이다. 여전히 다양한 장르를 마음껏 누비는 그의 재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이번 앨범의 가장 주요한 콘셉트는 “The Roaches”라는 바퀴벌레의 여러 모습을 본인의 캐릭터로 표현하였는데, 이번 앨범 제목이 ”분투하는 자“ 임을 생각하면 다소 의미심장한 캐릭터가 아닐까 싶다. 물론 전작에 이어 고통 속의 투쟁과 극복 및 치유의 서사를 담습한다는 느낌도 있겠으나 감히 구리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결국 그의 음악성은 죽지 않았으니, 그의 25살 나이가 두렵게만 느껴질 뿐이다.

그러니 만약 앨범을 감상하게 된다면,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The Roach”의 새로운 등장을!



Trippie Redd & Ski Mask the Slump God
in 2021



A Love Letter To You 5

Trippie Redd

1 Take Me Away	8 A Feeling	15 Helicopter
2 Last Days	9 Romantic Fantasy	16 Took My
3 Thy Motion	10 I'm Mad At Me	Breath Away
4 How You Alive	11 Closed Doors	17 Flowers
5 Thinking Bout You	12 Action	18 The Hate
6 Praying 4 Love	13 Left 4 Dead	19 Trip McKnight
7 Reality	14 Wind	

Editor SongChico

강렬한 사운드가 담긴 레이지, 거친 무드의 트랩, 진한 감성을 보여주는 R&B, 심지어 최근 발매된 Bandmanrill의 앨범에서는 저지드릴 비트에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트리피 레드(Trippie Redd)의 멜로디 메이킹 능력엔 기복이란 존재하지 않는 듯이 보이곤 한다. 트리피 레드의 장점을 하나 더 꼽자면 특색 있는 보컬 톤을 가지고 있으며 그 톤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보컬 테크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트리피 레드가 커리어 중 발매한 많고 많은 앨범/믹스 테이프 중 이 장점들이 가장 잘 두드러지는 브랜드는 단연 <A Love Letter To You> 시리즈이다.

하지만 이번 작, 이 시리즈의 5번째 작품인 <A Love Letter To You 5>는 발매된 타이밍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원래 이 앨범이 발매된 후 세상에 공개될 예정이었다고 알려진 <MANSION MUSIK>이 해킹범의 소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매된 후 <A Letter To You 5>의 발매일정이 뒤로 밀리며 편지의 수취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 모랄레스(Skye Morales)와 본인의 외도로 인해 결별한 것이 밝혀진 후에 발매되었기에 이 사건 자체가 앨범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상을 하는데에 조금은 신경 쓰이는 요소 중 하나였다.

전작을 뛰어넘을 혁신적인 발전이 있었나? 그것도 아니다. 1번 트랙 “Take Me Away”부터 감성적인 비트 위에서 늘 그랬듯이 자신의 벨팅 보컬을 마음껏 발산했고 우리가 아는 그 트리피 레드의 모습이 앨범 내내 이어지곤 했다. 1번 트랙 이후 계속해서 트리피 레드의 솔로 곡으로 앨범이 이어지다 “A Feeling”에서 이 긴 편지의 수취자 스카이 모랄레스가 등장해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퇴장하는데 그 뒤로 등장한 릴 웨인(Lil Wayne), 로디 리치(Roddy Ricch), 키드 라로이(The Kid Laro)로 이어지는 반가운 피쳐링 멤버들이 앨범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벌스들을 선사하고 떠나곤 했다. 다만, 토미 리 스파르타(Tommy Lee Sparta)가 참여한 “Helicopter”엔 좋은 점수를 주기엔 어려웠는데 곡의 퀄리티를 떠나 앞선 트랙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를 띄기에 길게 이어온 감정선이 한번 금 가는 순간이라고 느껴졌다.

“Helicopter”이후론 다시금 등장한 스카이 모랄레스와 감성적인 트랩의 대가 브라이슨 틸러(Bryson Tiller)가 참여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이어 나갔다.

이후 트랙 “The Hate”에선 시간이 지나 변해버린 이들을 비난하고 마지막 트랙 “Trip McKnight”에선 다른 앨범의 트리피 레드를 불러온 것처럼 공격적이고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을 비추며 앨범을 끝 마치게 된다.

앨범이 발매되기 전 불미스러운 일이 세상에 알려졌고 트리피 레드는 혁신적인 음악을 들고 돌아온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앨범을 다 듣고 나서는 만족스럽다는 감상이 들었다. 결국 이 앨범을 평가하는 데에 대한 영향을 준 것은 참여진들의 퍼포먼스였다. 트리피 레드의 멜로디 메이킹과 보컬을 다루는 능력은 다시 한번 이 앨범에서 빛을 발했고 참여한 다른 인원들도 본인의 색을 잘 보여주면서 동시에 앨범의 무드에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온갖 악재와 비소식에 발매된 앨범이었지만 <A Love Letter To You> 시리즈는 역시 트리피 레드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라는 사실이 다시금 한번 증명된 순간이다.



Sundial Noname

- | | |
|-----------------------------|-----------------|
| 1 black mirror | 7 beauty supply |
| 2 hold me down | 8 toxic |
| 3 balloons | 9 afro futurism |
| 4 boomboom | 10 gospel? |
| 5 potentially the interlude | 11 oblivion |
| 6 namesake | |

Editor 45

래퍼 노네임(Noname)은 어머니가 하시던 서점에서 비롯된 문학작품에 대한 사랑은 작문에 대한 관심으로 결심을 맺고 시인이란 꿈을 꾸게 해준다. 어린 시절부터 심상치 않은 그녀의 문장력은 어디서나 돋보였고 결국 그녀는 이러한 문장력을 힙합에 담고자 한다. 노네임은 단순 여성 래퍼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작사 능력이 뛰어난 래퍼로써 인정받는다.

래퍼 하나로 국한시키는 게 큰 실례일 정도로 노네임의 앨범 속 가사들은 복잡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다. 단순 인종 문제만 걸고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젠더 갈등, 환경문제, 정치적 문제, 미국을 넘어선 글로벌한 문제 까지 다소 민감한 부분을 스스럼없이 건드린다.

이러한 것들 때문일까 평소 인종 문제와 빈부격차를 주된 주제로 하는 일반 힙합과 달리 그녀의 앨범은 엄중하게 다가온다. 남들과 다르게 한 가지 주제에 국한되지 않은 채 전반적인 현실 사회를 고발하는 ‘고발자’ 역할을 한다. 어쩌면 이번 앨범의 타이틀인 <Sundial> (해시계)를 사회에 비유해 ‘보기엔 전보단 밝아진 사회 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이 더 깜깜해져 읊흉해진 사회’를 표현한 거 같다.

앨범의 초반부는 보사노바 재즈를 사용하여 산뜻한 느낌을 주고 중반부를 지나며 점점 분위기가 딥해지지만 여전히 잔잔한 알앤비 재즈 사운드를 바탕으로 진행해서 부드럽게 이지리스닝하기 좋은 사운드다.

곡의 구성 또한 중간중간 중독적인 흑과 알앤비 싱잉을 넣어 친숙하게 다가온다. 가사를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 보면 잔혹한 현실을 비판하는 글이라 가사와 반주가 서로 이질적이게 대립한다. 이러한 점은 서로 맞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각자의 강점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가사는 “마치 좋은 분위기에 웃으면서 말하지만 상대방을 위협하듯이 돌려 말하는 것” 같고 사운드는 듣기 좋은 이지리스닝으로 무거운 주제들에 비해 곡이 다가오기 쉬워진다. 위에 말한 해시계처럼 보이는 시침은 반주를 그 밑에 그림자는 가사를 보여주는 거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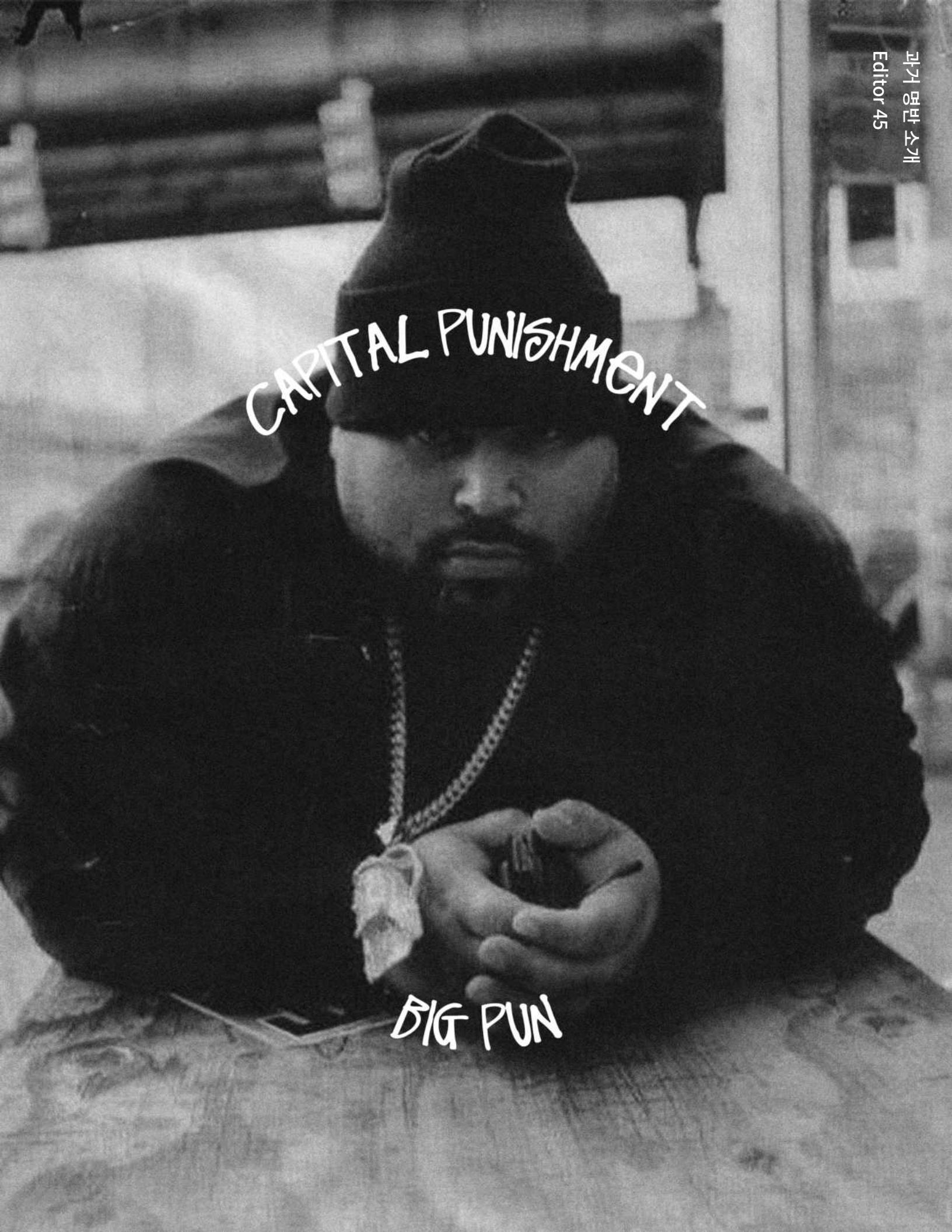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혐오와 차별은 매 순간 존재해왔고, 현시대인 2020년대에 와서는 표면적인 차별과 혐오 대신 간접적인 차별과 혐오가 성행한다. “Black mirror”, “Hold me down” 등 여러 곡에서 옛날보단 세상 살기 좋아졌다 하더라도 남부 지방인 텍사스 같은 곳에선 ‘흑인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린치를 당한다’ 혹은 ‘기득권층(백인)들은 비즈니스에서 흑인을 위한 척하면서 흑인만의 컬처를 이용하기만 하고 버린다’ 와 ‘인종 간 화합을 말하는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의 중동 학살’ 등 자세히 봐야 보이는 이면을 시원하게 들춘다. 이외에도 과도한 자본주의 사상으로 기본적인 복지도 못 받으며 인간성이 상실된 사람들을 나열하며 평등 사상이 자본주의에 굴복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과도한 공권력으로 자국민을 지켜야 할 힘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목을 조이고, 여러 계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관으로 묘사된다.

이 앨범이 시사하는 점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는 한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흑인 커뮤니티가 누구보다 차별과 혐오는 싫어하지만 그 어떤 조직보다 동성애 혐오와 여성들을 얕잡아보는 모습을 뛴다. 심지어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영웅 블랙 팬서 같은 오바마는 백인들도 하지 않은 최첨단 전투기로 종동인들을 처참히 학살한다. 또 어떤 이들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를 통해 다른 집단으로부터 사기를 치고 과도한 특권을 원하기도 한다. 그러면 흑인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것인가?라는 질문엔 아니라고 답하고 싶다. 아직도 여러 비즈니스 회사에선 흑인들을 쿨함의 상징 그 이상 그 이하로 느끼고 철저하게 그들의 문화는 존중하지 않고 이미지만 빼먹는다. 이외에도 대도시에선 처우개선이 됐어도 대도시에서 조금만 멀어진 소도시만 가도 흑인이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 린치를 당할 정도로 무서운 사회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이것들을 알면서 무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굳이 얹히면 더러워진다는 생각으로 지나쳐온다. 하지만 막상 내가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면 누구보다 남들에게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듯이 역겨운 모습을 보인다. 이런 비슷한 현상을 노네임은 곡의 마지막 구간에 강조하는 식으로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역겨운 모습과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노네임의 이번 신보는 한 편의 문학작품 같다. 피치포크에서 8.8점을 받은 이유가 있을 만큼 난해하고 복잡하며 읽는 이에 따라 해석이 충분히 다르게 될 수 있다. 명백하게 답을 제시하는 형태의 앨범도 좋지만, 이렇게 답은 주지 않되 리스너가 생각할 거리를 적극적으로 던져주는 작품이 정말 오랜만인 거 같다.





CAPITAL PUNISHMENT

BIG PUN



힙합 팬들에게 있어서 G.O.A.T(Greatest Of All Time)를 뽑는 것은 항상 흥미로운 주제이다. 누구에겐 2Pac, 누구에겐 Biggie, 또 누구에겐 Kanye West 일 수 있지만, 필자에게 랩 스킬만 놓고 봤을 때 누가 최고냐 묻는다면 단연코 빅 펀(Big Pun)을 뽑을 것이다. <Capital Punishment>는 힙합 역사상 최초 라틴계 래퍼의 플래티넘 앨범일 만큼 상징성이 짙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90년대 골든 에라의 종결을 알리는 앨범으로도 유명하다.

엄청난 거구에서 나오는 폐활량과 폭발적인 라임의 난사, 독특한 라틴계 영어 발음에서 비롯된 쉬지 않고 쏘아붙이는 타이트한 플로우까지, 글로 차마 형용할 수 없는 빅 펀의 경이로운 랩 실력에 매 순간 감탄하게 된다. 또 중간마다 혀를 튕기는 텅 트위스팅과 잠시라도 사운드가 비지 않는 그의 랩은 전에 없었고 현재도 없을 정도로 독특하고 감탄스럽다. 쉽게 한 마디로, 정말 순수하게 1등급의 랩만을 엑기스로 뽑은 앨범 같다. 현재까지 활동하는 The Roots의 베테랑 래퍼 Black Thought과 서로 랩 배틀을 하는 듯한 “Super Lyrical”부터 “The Dream Shatterer”, “You Ain’t a Killer”, “Capital Punishment” 등 누구도 감히 모방할 수 없이 숨이 턱턱 막히는 타이트한 랩까지, 펀은 예사롭지 않은 실력을 뽐낸다.



하지만 진정 이 앨범의 묘미를 뽑자면, 분위기를 환기하는 피쳐링과 대중성과 음악성 사이의 줄타기다. 먼저 코비 & 샤크와 같은 콤비 빅 펀 & 팻 조(Fat Joe)를 뽑을 수 있다. “Twinz”, “Glamour Life”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랩을 하는 구조도 독특하지만, 같은 라틴계 래퍼인 팻 조와 호흡을 맞춤으로써 일반 흑인 래퍼들과 다르게 다소 독특한 분위기를 풍긴다. 이 외에도 “You Came Up”의 훗에 강하게 들어오는 Noreaga와의 합, Mobb Deep의 멤버인 Prodigy의 랩, Joe와 Miss Jones의 달콤한 알앤비 보컬은 앨범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도 대중성을 향상시킨다.

이 앨범을 논할 때 작품성과 줄다리기하는 대중성을 제외할 수 없다. 앨범 초반 “Still Not a Player”와 “Punish Me”를 배치함으로써 랩만 고봉밥처럼 들어간 텁텁한 앨범의 옆에 국의 역할을 하는 부드러운 곡을 수록해 앨범 청취 중 피로감을 덜어낸다. 하지만 앨범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순수 힙합의 속성이 부각되고, 랩은 더 빽빽해지고 날카로워진다. 예를 들어 RZA 가 프로듀싱한 “Tres Leches”에서 Mobb Deep에 대한 오마주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앨범의 구조로 인해 전반부와 후반부를 대비하며 청취하는 것이 본작의 재미 중 하나가 되었다.

결국 펀은 1집을 발표하고 고질적이었던 비만으로 인해 2년 뒤인 2000년에 사망하게 된다.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서 그럴까, 그가 생전 온전히 보여준 랩은 겨우 1집에서 끝나게 됐다. 사후에 나온 2집은 여려모로 부족한 앨범이기에 그의 커리어에서 진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앨범은 1집뿐이다. 그 짧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랩만큼은 필자에겐 있어서 G.O.A.T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과거 명반 소개
Editor 온암



스페이스 오페라(Space Opera)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작품이 무엇인가? 십중팔구는 먼저 <Star Wars>와 <Star Trek>을 떠올릴 것이다. <Dune> 또한 적진 않다. 게임으로 <StarCraft>와 <Halo>의 이미지가 아른거린다. 음악계에서는 <Deltron 3030>이라는 앨범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델트론 3030을 이루는 세 명, 델 더 평키 호모사피엔(Del the Funky Homosapien), 댄 더 오토메이터(Dan the Automator), 키드 코알라(Kid Koala). 힙합의 이방인인 그들은 공교롭게 미국 사회 내에서도 소수 민족에 속해있었다. 그런 출신 배경이 그들로 하여금 대체 현실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든 것일까. Deltron Zero와 Automator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내세운 팀은 3030년의 미래 세계를 개념적으로 그려낸다.

물론 <Deltron 3030>이 최초의 컨셉 랩 앨범은 아니다. Wu-Tang 아래로 우후죽순으로 등장한 언더그라운드 힙합 앨범 중 <AT-Liens>와 <Funcrusher Plus>는 SF 컨셉을 위시한 얼터 니티브 힙합 앨범으로서 미래적인 사운드와 추상 작법을 씬에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Out-Kast와 Company Flow를 포함해 그 어떤 팀도 델트론 3030만의 공상 과학 세계를 창조한 적이 없었다.

댄 더 오토메이터의 샘플 채택 감각은 그 세계만큼이나 놀랍다. 3030년의 미래 사회를 청각적 요소만으로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샘플을

탐색하고 가공한 그는 본작의 음악이 청자들에게 비관적 이미지로 엄습하게 만들었다. 동시대의 그 누구도 오토메이터만큼이나 명징한 미래주의적 음향을 설계하지 못했다. 이 위에 키드 코알라가 보이스 샘플을 올리고 스크래치를 짚음으로써 힙합의 특성을 보간함과 동시에 미래 세계 설정에 대한 설득력을 강화한다. 가히 힙합 오페라라는 찬사가 어울리는 경지의 프로덕션이다.

델 더 평키 호모사피엔이 그려내는 디스토피아 세계는 유독 선명할 뿐더러, 놀랍도록 입체적이다. 그의 사촌만큼이나 강력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진 않지만 어휘력에 한해서라면 역대 최고 중 하나로 거론되어도 무방한 그인 만큼, 호모사피엔은 2000년 기준 최대한의 전문용어들을 활용해 3030년의 디스토피아를 묘사한다. 우직한 플로우로 이끄는 그의 스토리텔링은 서브컬쳐적인 묘사가 돌보이면서도 염세주의적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여느 디스토피아 작가들이 그러하듯 그는 미래의 모습을 매개로 현실 문제에 간접적인 비판을 가한다.

당장 같은 해에 <The Marshall Mathers LP>와 <Stankonia>와 같은 불후의 명반들이 배출되었으니 본작에 대한 조명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매니아층을 위주로 소비되는 언더그라운드 힙합 앨범이라는, 일말의 편견에서 비롯되는 진입장벽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허나 장담컨데, “3030”의 장대한 랩 오페라를 들은 후 이 앨범에 매료되지 않을 리스너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뉴재즈

Editors 45, Songchico

뉴재즈의 발전 과정과 장르적 정의

The Development and Genre Characteristics of New-Jazz

레이지

장르의 인기가 식기 시작하

며 새롭게 떠오르는 신생 장르가 있다. 뉴재즈 (New Jazz)이다. 정확한 시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레이지 장르 탄생 2년 후인 2022년 ‘amir pr0d’라는 프로듀서로 인해 탄생 했다는 게 정설이다. 들어보면 알겠지만 레이지 하위 장르 사운드와 상반되게 이름에 재즈가 들어가는데, 이는 ‘amir pr0d’가 색소폰과 기타 등 기존 레이지에 피로감을 덜어주고 실험적인 것들을 섞었다고 하여 뉴재즈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트리피 레드(Trippie Redd)의 “Trip At Knight” 이후 레이지 장르는 세분화하여 각자 새로운 형태로 소화하였다. 여러 스타일의 레이지가 있지만 뉴재즈가 탄생하게 된 스타일에 대해 말해 보자면 이트(Yeat)와 서머(Summrs)를 뽑을 수 있다. 이트에선 전체적인 다크한 분위기와 랩 스타일을 가져왔고, 서머에선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한 알엔비 힙합의 스타일을 채택하게 된다. 이는 나중에 런치박스(Lunchbox)의 앨범 “New Jazz”로 리스너들에게 눈도장을 찍는다.

초기 뉴재즈 (2022년~2023년 5월)까지는 아직 강렬한 트랩 사운드인 레이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일까 딱히 큰 매료를 못 느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런 뉴재즈에 일반 대중에게 도 알리는 계기가 생기는데 ‘틱톡’이다. 원래 틱톡을 바탕으로 성장한 플럭앤비와 비슷 한 계열이라 금방 하입을 받기 좋은 상태였고, 무엇보다 1~2분의 짧은 러닝타임은 솟츠 영상에 최적화된 장르였다. 기존에 있던 플럭앤비(플러그+알앤비)와 융합되어 대중적인 사운드로 탈바꿈하였다. 플럭앤비와 같이 여러 다채로운 신디사이저 위주의 비트 플레이여서 그럴까 기존의 플럭앤비에 힙합적인 향, 다크함을 더해 더 세련된 사운드가 됐다.

대표적인 아티스트로는 Kyra, amir pr0d, фрози, Lunchbox, tenseoh, ven 등이 있다. 이중 핫한 곡들만 뽑아보자면 ‘Sour haribos’, ‘Heartburn’, ‘Spido’, ‘Sweet Talk’, ‘Hata’를 뽑을 수 있다.

말로는 2022년이지 사실 대중들에게 하입을 받은 시기는 2023년 중순이라 반년도 안 된 시점이라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완전 신생 장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필자가 예측해 보자면 큰 축으론 뉴재즈와 플럭앤비를 섞은 장르가 선도를 할거 같다.



앞서 뉴재즈의 발전과정을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뉴재즈의 장르적 정의를 알아보려 한다. 뉴재즈는 레이지와 플럭앤비 그 어딘가 사이에서 태어난 장르로 간단히 정의하자면 “레이지와 크게 다른 점을 띄지 않지만 원류의 레이지보단 훨씬 듣기 편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장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플럭앤비와의 연결고리는 Slay-World (슬레이월드)의 멤버 벤지콜드 (BenjiCold)와의 작업에 있다. 벤지콜드는 같은 크루의 멤버 이트 (Yeat), 써머스 (Summrs)와의 작업물로 잘 알려져 있는 프로듀서 겸 래퍼이다. 플러그/플럭앤비 장르에서 Asian Rock, Ailen Talk 등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 데에 열중했던 인물로 벤지콜드가 플러그에서 초창기 레이지로 넘어가던 시기의 작업물과 뉴재즈의 사운드가 크게 다르지 않을뿐더러 이트 (Yeat)와의 인연으로 런치박스와 함께 작업물을 만들기도 했다.

결국 벤지콜드 덕에 뉴재즈는 레이지와 플럭앤비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장르가 된 것이다. 사운드적으로 앞서 말한 듯이 ‘결국엔 레이지 아닌가?’ 하는 의문으로 귀결되곤 하지만 레이지와의 차이점은 ‘과하지 않음’에 있다. 오피움 (OPIUM) 사단의 레이지도 슬레이월드의 레이지도 서로 다른 분위기를 풍기지만 결국 두 레이지는 과장된 808 베이스와 귀를 가득 채우는 신스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면 뉴재즈는 훨씬 부드럽고 간결한 악기구성을 지향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아직 이 장르를 주 장르로 삼는 래퍼들이 많지는 않지만 뉴재즈 비트 위에서 랩을 하는 많은 래퍼들이 이트에서 영향을 받아 곡 내에서도 피치를 바꿔가며 랩을 한다는 특징도 있다.

결론짓자면 아직까지는 이 음악들을 ‘레이지’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지만 지향하는 방향이 다른 것은 분명하며 좀 더 듣기 쉬운 음악들이 조명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뉴재즈라는 장르의 등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볼만 하다는 것이다.



DONDA

칸예 웨스트의 <Donda>와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의 유사성

Editor snxo

오늘날 서양사를 다룰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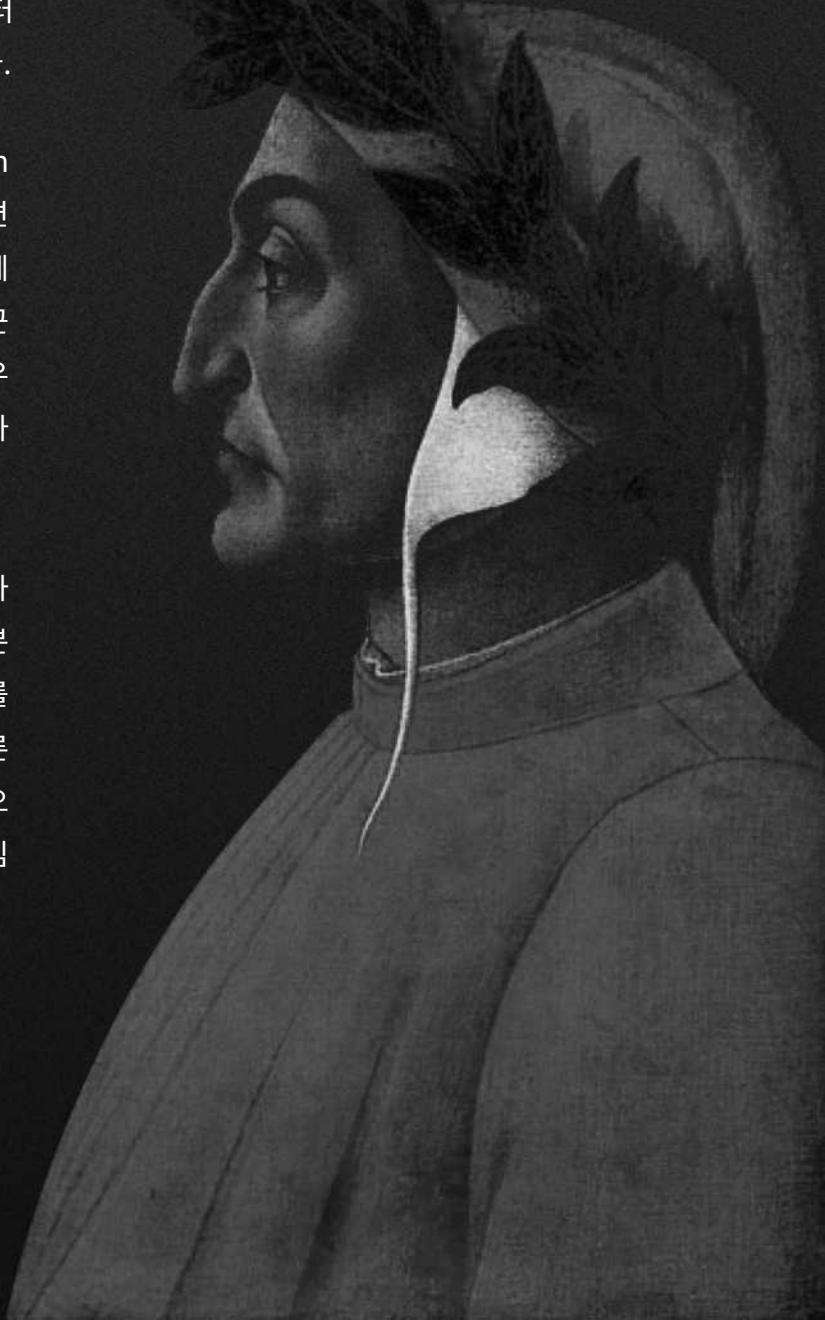
그의 인생을 짧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몰락귀족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2. 10대 후반에 가장이 되지만 경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힘든 처지는 아니었고.
3. 젊은 시절부터 문학과 학문으로 상당한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얻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시 공화국이던 피렌체의 정치무대에서도 두각을 드러냈지만
4. 정치적 분쟁에 휘말려 장년의 나이에 추방당했고
5. 이후 망명지에서의 사회적 활동이나 창작활동에 매진하면서도 평생동안 고향을 그리워했지만, 결국 타향에서 죽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위대한 시인으로 이름을 알리지만 장년의 나이에 정치적 분쟁에 휘말린다.” 별써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는가? 이렇게 칸예가 실은 단테의 환생이라는, 또는 칸예의 독창적인 예술관이 단테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팬들의 이론의 시작은 2013년부터 진행된 칸예의 6집 투어 “The Yeezus Tour”로 거슬러 간다.

당시 칸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투어에 참여했던 Elon Rutberg가 <Yeezus> 투어의 서사는 단테의 신곡 중 지옥 편과 성경 속 다윗 왕의 이야기를 접목하여 탄생하였으며 칸예가 단테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니 이를 근거로 삼아서 칸예와 단테의 관계성 이론을 그저 또 하나의 우스운 Fan Theory로 보기엔 분명히 유효한 쟁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글의 목적은 칸예 웨스트의 10번째 앨범 <Donda>에 나타난 방대하고 난해한 구조를 단테의 <신곡>에 접목시켜 분석하는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글은 <Donda>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유일한 해답이 아닌 단지 하나의 또 다른 관점을 소개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당부하는 바이며, 오로지 필자의 개인적인 해석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또한 명심하길 바란다.



파트 1. 칸예 웨스트의 <Donda>와 단테의 <신곡> 속 구조적 유사성.

“Abandon all hope, **ye** who enter here.”

“모든 희망을 버려라,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신곡> 지옥 편 제 3곡 (지옥의 문에 새겨진 시)

단테의 <신곡>은 지옥 편, 연옥 편, 천국 편, 총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옥이란 가톨릭 교리상 존재하는 장소로 사람이 천국에 입성하기 전 세상의 죄를 정화하는 곳으로, 흔히 지옥과 천국의 중간 단계라고 불린다.) 이 중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지옥 편 속 다뤄지는 지옥의 모습은 원추형의 구조로 이루어져 아홉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층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층: 림보 Limbo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선한 자가 가는 곳으로 좋은 대우를 받으나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

2층: 색욕 지옥 Lust

3층: 폭식 지옥 Gluttony (폭음, 폭식, 중독에 빠진 자가 가는 지옥)

4층: 탐욕 지옥 Greed

5층: 분노 지옥 Anger

6층: 이단 지옥 Heresy

7층: 폭력 지옥 Violence

8층: 사기 지옥 Fraud

9층: 배반 지옥 Betrayal



필자는 이 아홉 개의 층에 <Donda>의 첫 아홉 트랙을 대입해 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1층: 림보 - Donda Chant

2층: 색욕 지옥 - Jail

3층: 폭식 지옥 - God Breathed

4층: 탐욕 지옥 - Off The Grid

5층: 분노 지옥 - Hurricane

6층: 이단 지옥 - Praise God

7층: 폭력 지옥 - Jonah

8층: 사기 지옥 - Ok Ok

9층: 배반 지옥 - Junya

단테가 지옥에 도착하여 처음 발견한 첫 번째 층이자 그의 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인 림보엔 앨범의 시작을 알리는 “Donda Chant”가 배치되어 있으며, 과거 불륜 사실을 인정했던 제이지(Jay-Z)가 참여한 “Jail”은 색욕 지옥과 같은 위치인 2층에 위치한다. 나아가, 최근 자신의 술과 약 중독,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가족에 끼치게 된 피해에 대해 밝힌 보리(Vory)가 천사의 음성을 고백하는 “God Breathed”가 폭식(폭음) 지옥과 같은 순서에 존재하는 점, 그리고 신을 찬양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성공과 그에 따른 재물을 과시하는 곡인 “Off The Grid”가 탐욕(Greed) 지옥인 4층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Donda>의 첫 9곡의 배치 순서가 지옥의 9개의 층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금만 더 살펴보자. 강으로 둘러싸인 5층의 분노 지옥은 죄인들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벌을 받는 지옥이다. 5번 트랙인 “Hurricane” 속 릴 베이비(Lil Baby)는 과거의 죄를 벗어던진 후 자신이 다리 위에 있음을 밝히며 본인의 벌스를 시작하고 위켄드(The Weeknd)는 자신의 흙에서 신께 자신을 물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달라며 애원한다.

‘Father, hold me close, don’t let me drown’



6층인 이단 지옥에 위치한 트랙의 제목은 “Praise God”이며 악마가 자신의 적임을 선포한다. 폭력 지옥과 같은 일곱 번째 순서에 위치한 “Jonah”에선 보리와 릴 더크(Lil Durk)가 자신의 소중한 이를 총기 사건으로 잃은 경험을 노래하고 마지막 벌스에서 칸예는 시카고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갱 간 전쟁과 폭력 사태를 비판하며 소신을 밝힌다.

‘Smoke a opp pack ain’t funny like that / It get ugly like that, can’t get no money like that’

이 뿐인가, 8층 사기 지옥엔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 주변을 맴도는 이들과 음악 인더스트리를 비난하는 곡인 “Ok Ok”를, 마지막으로 배반(Betrayal) 지옥이 위치한 9층엔 트리피 레드의 “Betrayal”이란 곡을 통해 자신을 디스 한 드레이크에게 맞대응을 하는 “Junya”를 배치함으로 <Donda>의 난잡하고 부실한 트랙 배치의 배경엔 어떻게든 단테의 <신곡> 중 지옥의 모습을 순서대로 연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번 트랙인 “Donda Chant”부터 9번 트랙 “Junya”까지가 <Donda>의 지옥 편이었다면 10번부터 18번 트랙은 칸예가 자신의 죄를 깊게 뉘우치고 정화되길 간구하는 세계인 연옥을 의미한다. 거짓 우상을 태우고 새 생명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14번 트랙 “Heaven and Hell,”

‘Burn false idols, Jesus’ disciples / Pray for new life, pray for new breath’

더 월드 페이머스 토니 윌리엄스(The World Famous Tony Williams)의 목소리를 빌려 신의 권능과 그의 왕국을 찬양하는 인털루드 “Donda,” 끊임없이 ‘Thank God’과 ‘Jesus, Lord’를 외치는 16번과 17번 트랙 “Keep My Spirit Alive”와 “Jesus Lord”를 거쳐 연옥 편의 마지막 트랙인 18번 곡까지 도달하면 곡의 엔딩의 강렬한 비트 위에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Make me new again)’라고 반복하여 부르짖는 선데이 서비스(Sunday Service Choir)의 아름다운 합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Make me new again, make me new again’

‘Make me new again, make me new again’

‘Make me new again, make me new again’



결국 앨범의 마지막 파트인 천국에 도달한 칸예. 천국 편의 첫 곡이자 두 세계를 이어주는 인털루드인 “Tell The Vision.” 지금은 고인이 된 팝 스모크(Pop Smoke)의 벌스를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당당하게 선포한다.

*‘****, we made it / ****, we made it / ****, we made it’*

마릴린 맨슨(Marilyn Manson)이 합류한 색욕 지옥의 “Jail pt 2”와 같이 앞서 배치된 트랙들의 서사를 뒤받쳐주기 위해 탄생한 파트 2 트랙들을 제외하고, 방대한 서사의 앨범의 끝을 장식하는 곡인 “No Child Left Behind”는 더 이상 신께 구원을 갈구하는 것이 아닌 앞선 곡에서 밝힌 신께서 자신에게 선보인 기적을 간증하며 앞으로도 신께 의지하겠다고 밝히며 앨범을 마무리한다.

‘I’ll always count on god / He’s done miracles on me’

파트 2. <Donda> 리스닝 파티와 <신곡>의 구조적 유사성.

총 세 편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단테의 <신곡>과 마찬가지로 2021년 앨범의 정식 발매를 앞두고 열린 <Donda>의 리스닝 파티 역시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앨범의 트랙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세 번의 리스닝 파티 역시 각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주로 가수들의 앨범이 발매되기 전 앨범의 음악적 방향성을 미리 소수의 관계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주최되는 리스닝 파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팬들과 미디어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칸예의 <Donda> 리스닝 파티가 세 번 모두 팬들과 함께 공연의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단순히 매출을 위함이 아닌 비주얼적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요소가 앨범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로 진행된 리스닝 파티에서 칸예는 아무 소품도 없는 텅 빈 스튜디움에서 홀로 무대를 채운다. 마치 성경 속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대 위 새빨간 복장의 칸예의 모습은 마치 신과 멀어져 있는 듯한 그의 개인적인 지옥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두 번째 리스닝 파티 역시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무대의 구성과 그의 복장만은 다르다. 자신의 방에서 운동과 휴식, 독서와 음악 작업을 하며 리스닝 파티를 준비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연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신께 나아가길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과 닮아있기도 하다. 무대 중앙에 위치하여 와이어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칸예를 중심으로 그를 에워싸고 있는 다수의 검은 복장의 그들. 칸예가 “Heaven and Hell” 뮤직비디오 중 오마주 하기도 한 귀스타브 도레(Gustave Dore)의 그림 “Paradiso, Canto 34” 속 단테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의 주위를 원으로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과도 같다.

이 그림의 레퍼런스는 세 번째 리스닝 파티에서 보다 명확한 형태로 다시 찾아볼 수 있다. 반성과 죄의 정화를 거친 뒤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신의 왕국으로 입성하는 칸예, 세 번째 리스닝 파티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집’이다. 광활한 스튜디움에서 이뤄진 앞선 두 차례의 리스닝 파티와 달리 마지막 파트에서 우리는 자신의 고향인 시카고의 낡은 집으로 돌아간 칸예를 만나볼 수 있다. 이 세상을 떠나 나의 창조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천국의 구조처럼 칸예는 그의 천국 편에서 어린 시절 살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두 번째 리스닝 파티를 이어 마지막 파티 역시 원을 지어 움직이고 찬양하는 검은 복장의 사람들이 무대를 채운다. 다만 차이점은 무대의 중앙에 칸예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의 집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천사들이 띠를 둘러 보호하는 형태의 단테의 천국처럼 말이다.



Donda Listening Party (Third)
Kanye West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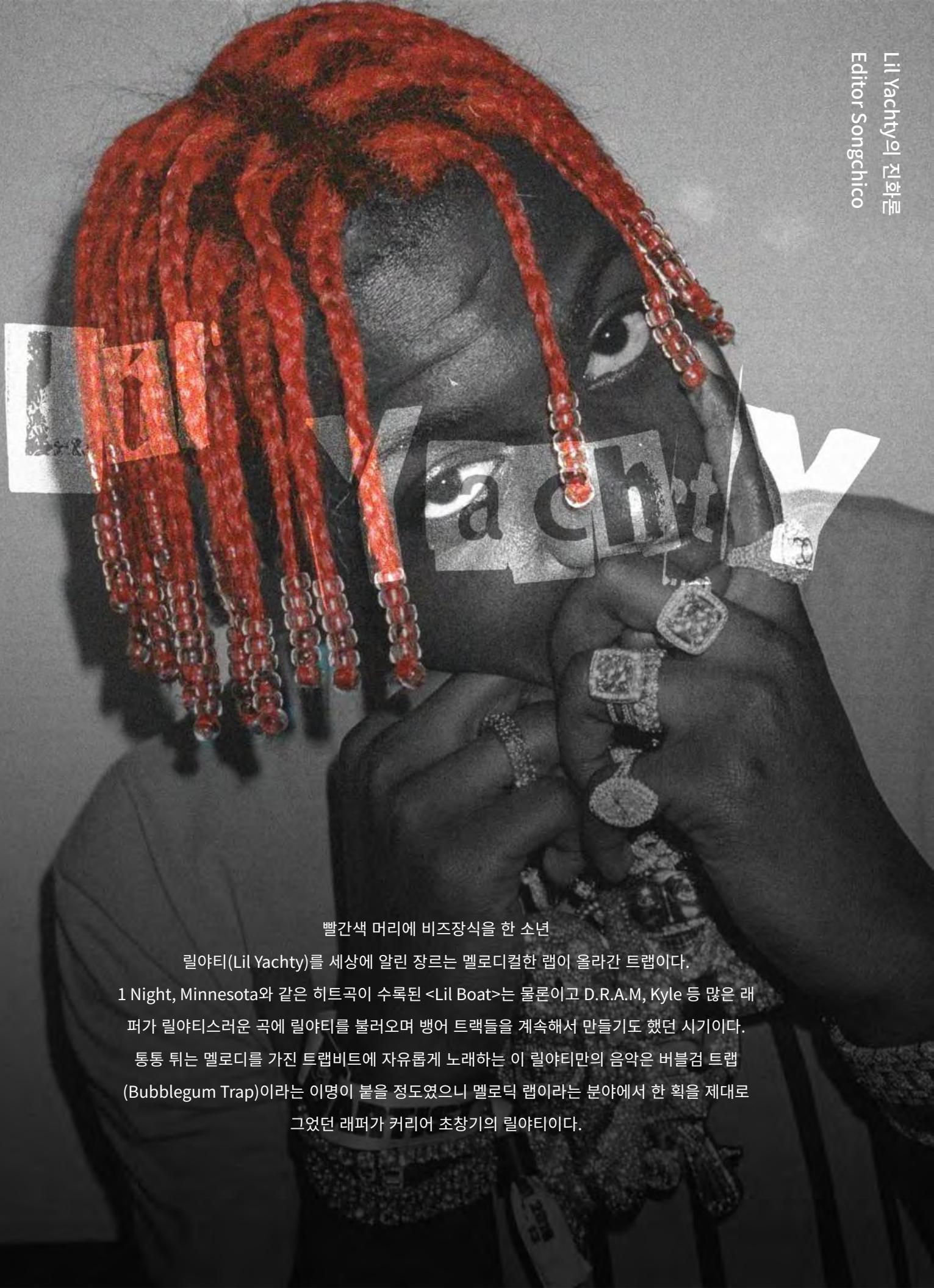


Paradiso, Canto 34
Gustave Doré 1868

그림의 제목인 “Paradiso, Canto 34”은 직역하면 “천국 편, 제34곡”으로, 사실 총 33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곡>의 천국 편에서 존재하지 않는 곡을 그린 작품이다. 그렇다면 귀스타브 도레는 실존하지도 않는 시의 삽화를 왜 그린 걸까? 이 그림에 대한 정확한 배경은 어렵게도 찾지 못하였지만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신곡>의 수많은 삽화를 그린 그인 만큼 단테와 그의 철학에 대한 이해와 경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외전을 만든 것이 아닐까 싶다. 칸예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아온 단테, 그의 역작인 <신곡>과 그 시가 품고 있는 종교적, 그리고 철학적 메시지는 칸예에게 큰 감명을 주기에 충분하고 남다. 어쩌면 칸예 역시 <Yeezus> 투어부터 시작한 자신만의 <신곡>을 <Don-da>라는 앨범을 통해 완성시킨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나만의 추측을 해본다.

+) 재미난 사실들

1. <신곡> 속 길을 잃은 단테를 세 단계로 이루어진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이의 이름은 베르길리우스이다. 단테의 옆을 지키는 인도자, 그의 영어명은 Virgil이다. (Abloh?)
2. 칸예와 킴 카다시안의 결혼식과 단테의 탄생은 도보로 두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빨간색 머리에 비즈장식을 한 소년

릴야티(Lil Yachty)를 세상에 알린 장르는 멜로디컬한 랩이 올라간 트랩이다.

1 Night, Minnesota와 같은 히트곡이 수록된 <Lil Boat>는 물론이고 D.R.A.M, Kyle 등 많은 래퍼가 릴야티스러운 곡에 릴야티를 불러오며 뱅어 트랙들을 계속해서 만들기도 했던 시기이다. 통통 튀는 멜로디를 가진 트랩비트에 자유롭게 노래하는 이 릴야티만의 음악은 버블검 트랩(Bubblegum Trap)이라는 이명이 붙을 정도였으니 멜로딕 랩이라는 분야에서 한 획을 제대로 그었던 래퍼가 커리어 초창기의 릴야티이다.

침체기처럼 보이지만...

멜로디컬한 랩이 가져온 영광을 뒤로 하고 릴야티는 더욱더 거친 랩과 그 랩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Lil Boat>이후 발매한 <Lil Boat 2>, <Nuthin' 2 Prove>, <Lil Boat 3>로 이어지는 앨범들의 라인업이 그 예시로 모든 곡이 거친 랩과 하드한 트랩 비트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그전에 비하면 랩의 비중이 훨씬 늘어나고 더욱 어두워진 분위기로 변신을 꾀하고 있었다. 이 시기를 릴야티가 부침을 겪은 시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2021년 <Michigan Boy Boat>를 발매하며 디트로이트 트랩으로 대표되는 미시간 지역 특유의 트랩 장르를 베이스로 ShittyBoyz, Tee Grizzley등 디트로이트 지역의 대표 래퍼들과 협업하며 이 지역만이 가진 또 다른 트랩의 매력을 세상에 선보이기도 했다.

2022년, 다시금 주목을 받다.

2022년은 릴야티에게 중요한 한 해였는데 가장 큰 수확은 조금은 떨어졌던 Hype을 다시 찾아왔다는 데에 있다. 드릴과 레이지가 혼재하던 2022년의 힙합 씬에서 릴야티는 특유의 뭉툭한 톤으로 강렬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두 장르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카티의 프로듀서로 알려진 f1lthy가 프로듀싱한 레이지 트랙 “Poland”로 난생처음 듣는 보컬을 선보여 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2023년, 2016년 이후 찾아온
최고의 전성기

2023년, 감히 평가해 보자면 릴야티는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올해 초 발매한 <Let's Start Here>는 자신의 바운더리를 힙합이 아닌 네오-사이키델릭으로까지 넓힌 것은 물론 “Poland”에서 프로토타입 격으로 보여준 보컬 톤을 활용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역으로 이 앨범을 끌고 갔다. 큰 호평을 받은 이 앨범에 안주하지 않고 3곡이 수록된 <Slide>를 통해선 레이지의 파생 장르인 NewJazz까지 선보이며 자신의 말처럼 Lil 래퍼들 사이에서 앞서 있는듯한 모습을 증명하였다. <Let's Start Here>가 앞으로 나올 릴야티의 음악적 색을 대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이런 의견들엔 반대표를 던지려 한다. 왜냐하면 투팍과 비기를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White Ferrari”를 자신의 인생곡이라 말하기도 하는, 동시에 디트로이트 트랩, 레이지, 드릴 등 장르 안 가리고 본인이 그때 하고 싶은 음악을 세상에 보여주는 예측 불가능함이 릴야티의 최대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힙합 50주년

Editors 온암, SongChico, 앞날

50

w/HOM이 선보이는 힙합 50주년 기념 주요 타임라인

1973

1973년 8월 11일, 뉴욕 북부에 위치한 브롱스 지역의 한 파티. 모든 사람이 열광적으로 파티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한 남자가 열심히 디제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파티의 DJ를 맡은 이후, 많은 이들이 이 남자에게 찾아와 그만의 디제잉 방법을 물고 배워가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나중엔 이 날을 ‘힙합의 날’로 부르게 되었다. 대체 이 파티가 힙합에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열띄게 디제잉을 하던 이 남성의 이름은 쿨 허크(Kool Herc).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이후 12살 때 가족들과 뉴욕에 이사를 온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그라피티를 그리고, 음악을 틀며 놀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던 그는 동시기 DJ로도 활동을 시작했다.

1973년 8월 11일은 쿨 허크의 동생 Cindy가 신학기에 입을 옷을 사기 위해 파티 ‘Back To School Jam’을 개최한 날이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파티의 DJ는 쿨 허크가 맡게 되었다.

평소처럼 디제잉을 하던 중, 춤을 추던 사람들이 드럼만 재생되는 구간을 더 좋아하기에 춤추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은 쿨 허크는 곧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매우 간단하게도, 파티에 턴테이블을 하나 더 도입하는 것이었다. 한 턴테이블의 드럼 연주 부분이 끝나면 옆에 있는 턴테이블에서 다른 드럼 연주를 재생시키며 반복적으로 드럼만을 재생하는 방법론. 쿨 허크는 이에 ‘The Merry-Go-Round(회전목마)’라는 이름을 붙였고 해당 기법이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곧 힙합 음악의 단초가 되었다.

또한 이 드럼만 연주되는 부분을 ‘브레이크 비트’라고 명명하며 이 브레이크 비트에 춤을 추는 이를 Break-Boy와 Break-Girl, 즉 비보이(B-Boy)와 비걸(B-Girl)로 부르게 되었다. 즉, 이 파티에는 쿨 허크가 흥을 돌우기 위해 외치던 추임새까지 포함해 MCing, B-Boying, DJing, Graffiti, 즉 힙합의 4대 요소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순간이었던 것이다. 오늘 날 1973년 8월 11일을 ‘힙합의 날’로 기념하게 된 것은 그러한 까닭이다.



ADD Kool Herc Party

* * BACK TO SCHOOL JAM * *

PLACE: 1520 SEDGWICK AVE. "REC ROOM"

DATE: August 11, 1973

TIME: 9:00 p.m. to 4:00 a.m.

ADMISSION: \$.25 LADIES 

\$.50 FELLAS

GIVEN BY: Kool Herc

SCHOOL'S
OUT

SPECIAL GUESTS: Coco, Cindy C., Klark K., Timmy T

"Back To School Jam" Ticket

August 11,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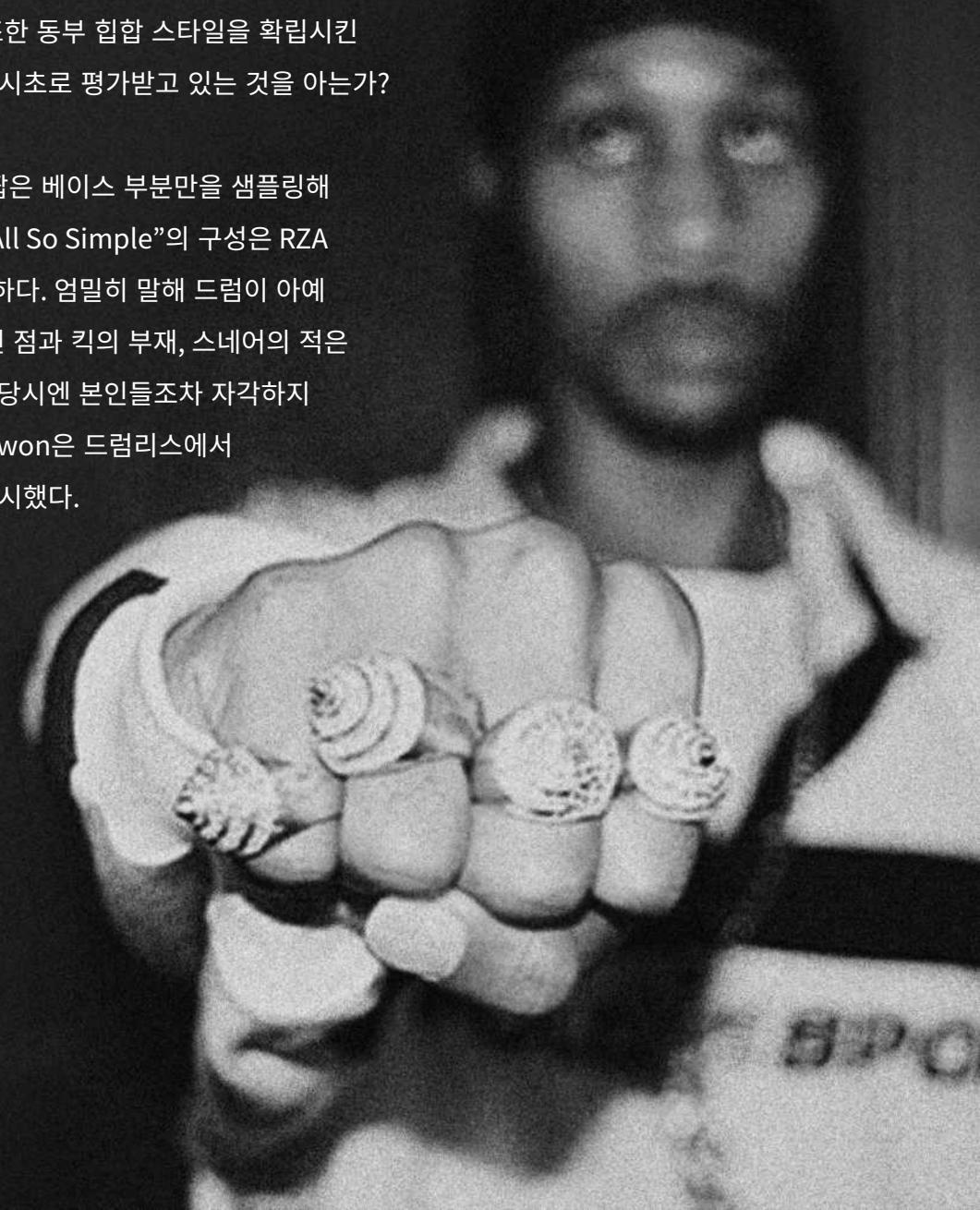
1984

힙합 최초의 디스전은 무엇일까? 투팍과 비기, 나스와 제이지 등의 초대형 디스전 이전에 ‘Roxanne’s War’로 불리는 최초의 힙합 디스전이 있었다. 물론 이전에도 디스라고 여겨지는 가사와 랩 배틀 문화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녹음된 디스전은 Roxanne’s War가 최초다. 이 디스전은 Roxanne Shante가 UTFO의 원곡을 뒤튼 “Roxanne’s Revenge”라는 롤플레잉 디스곡을 내고, 이후 UTFO를 비롯한 다양한 래퍼들이 참여하며 진행되었다. 결국 초기의 디스전은 ‘Roxanne’이라는 이름을 두고 수많은 래퍼들이 참여한 일종의 컨셉 배틀로 정리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당시 파티 음악이 주류였던 힙합 문화에서 디스전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부흥했다는 사실이다.

1993

힙합 프로듀싱의 뿌리를 거슬러가다보면 언제나 RZA라는 중요한 인물을 지나게 된다. 샘플 루핑을 중심으로 건조한 동부 힙합 스타일을 확립시킨 이 위대한 프로듀서가 드럼리스 장르의 시초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아는가?

Klaatu의 “Anus of Uranus” 중 아주 짧은 베이스 부분만을 샘플링해 베이스와 스네어를 덧붙인 “Can It Be All So Simple”의 구성은 RZA 특유의 미니멀리즘 중에서도 가장 단출하다. 엄밀히 말해 드럼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으나 주 악기가 베이스인 점과 킥의 부재, 스네어의 적은 비중은 드럼리스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당시엔 본인들조차 자각하지 못했겠지만, Ghostface Killah와 Raekwon은 드럼리스에서 어떤 랩을 펼쳐야 하는지 모범적으로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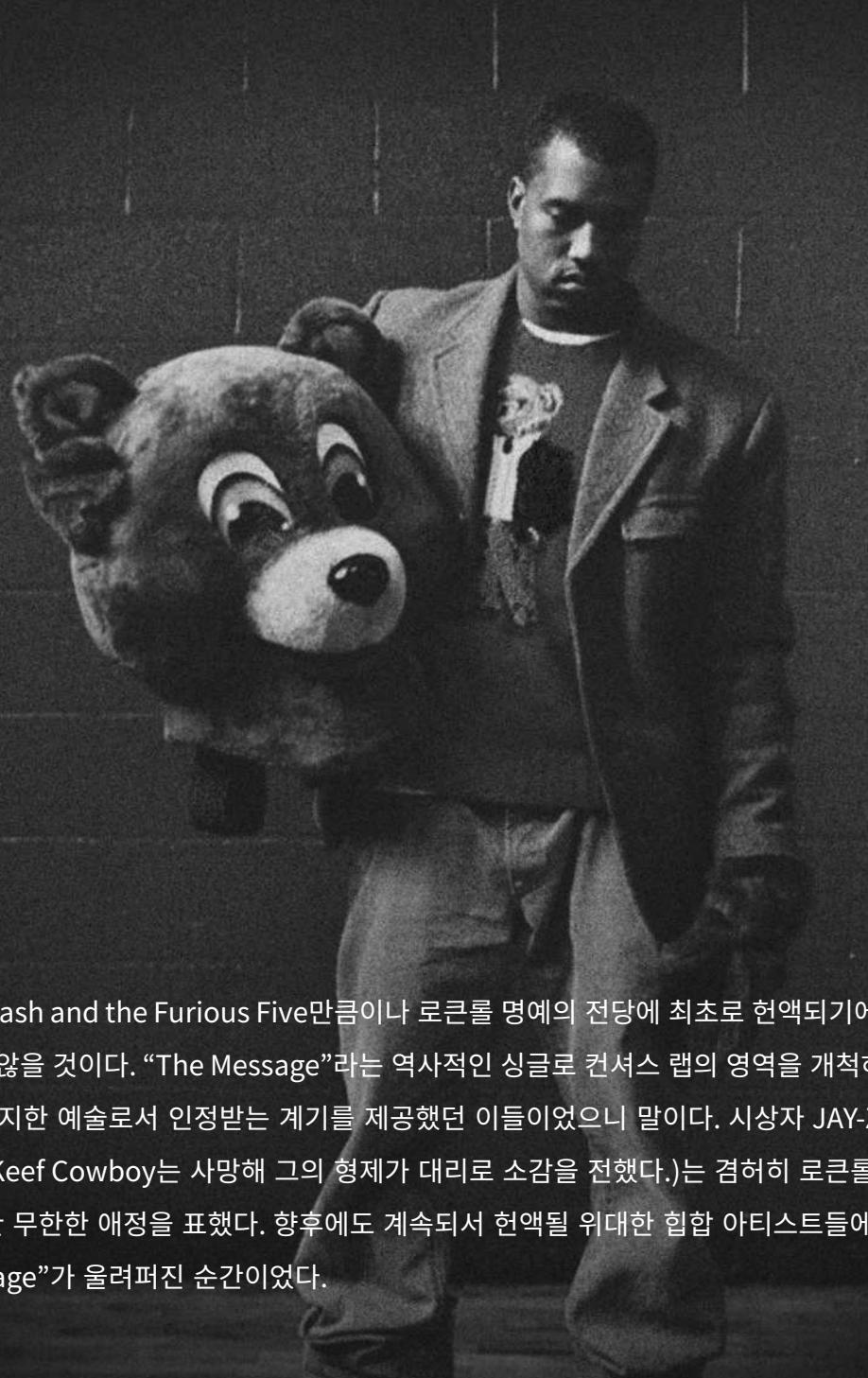
1999



어느새 90년대의 마지막 해, 1999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커다란 이변이 일어났다. 1995년의 그래미 랩 앨범 노미네이트 이후, 혜성처럼 등장한 한 신인이 힙합 사상 최초로 그래미 올해의 앨범을 포함하여 5개의 상을 독식한 것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Lauryn Hill. 그룹 The Fugees의 일원에서 시작해 데뷔 앨범 *<The Miseducation of Lauryn Hill>*로 훌륭히 독립한 여성 아티스트였다. 당시 이 앨범이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던 이유는, 랩과 보컬이 레게, 알 앤비, 힙합 위에서 자유로이 나아가 “힙합 소울”的 형태를 그 어떤 이보다 완성도 높게 성공적으로 구현했음에 기인한다. 앨범 한 장만으로 수십 년의 세월을 흘려보낸다 한들, 그녀가 여전한 귀감이 되는 이유이다.

2004

2004년은 여려모로 힙합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로, 오버와 언더를 막론하고 힙합에 큰 변혁이 일어난 시기이다. 혜성처럼 등장한 Kanye West의 <The College Dropout>, Madlib과 MF DOOM의 만남으로 성사된 <Madvillainy>, Usher의 메가 히트곡 “Yeah!”, 그리고 OutKast의 <Speakerboxxx/The Love Below> 그래미 본상 수상까지. 가지는 의의는 상이하나 총체적으로 힙합 내에 새로운 피가 수혈되기 시작한 것이다. 언더 씬의 부흥과 세부 장르 확장으로, 동서부의 단순 대립 구도에서 남부의 성장까지. 힙합이 허물을 벗고 있었다. 새로운 음악과 문화 유행이 범람하며 힙합은 본격적으로 2000년대의 새 국면을 맞이한다.



2007

Grandmaster Flash and the Furious Five만큼이나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헌액되기에 자격이 충분한 힙합 아티스트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The Message”라는 역사적인 싱글로 컨셔스 랩의 영역을 개척하고 랩에 메시지를 이식함으로써 힙합이 진지한 예술로서 인정받는 계기를 제공했던 이들이었으니 말이다. 시상자 JAY-Z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은 5명의 아티스트(Keef Cowboy는 사망해 그의 형제가 대리로 소감을 전했다.)는 겸허히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감사를 표한 후 힙합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했다. 향후에도 계속되서 헌액될 위대한 힙합 아티스트들에 대한 추가로 락의 중심지에서 “The Message”가 울려퍼진 순간이었다.



MF Doom
1971 - 2020

2016

매년 최고의 신인들을 선정하는 XXL의 Freshman Class, 2016년엔 Lil Uzi Vert, 21 Savage, Lil Yachty 등 10명의 인원이 프레시맨으로 선정되었다. 전년도의 선정에 비하면 사운드클라우드 출신의 트랩 아티스트들의 비중이 확연하게 늘어나 있었다.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머리와 멤블 랩에 당시 혹평이 우세했다. 7년이 지난 지금, 놀랍게도 이들 대부분이 씬을 주도하는 래퍼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Drake의 파트너가 되어 전 세계 스트리밍 21위를 차지하는 래퍼가 되기도, 브루노 마스와 팀을 이뤄 그래미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사이키델릭 락을 시도하는 아티스트가 되기도 하였다. XXL Freshman Class 중 결과적으로 가장 성공적이었던, 가히 반전과도 같은 한 해였다.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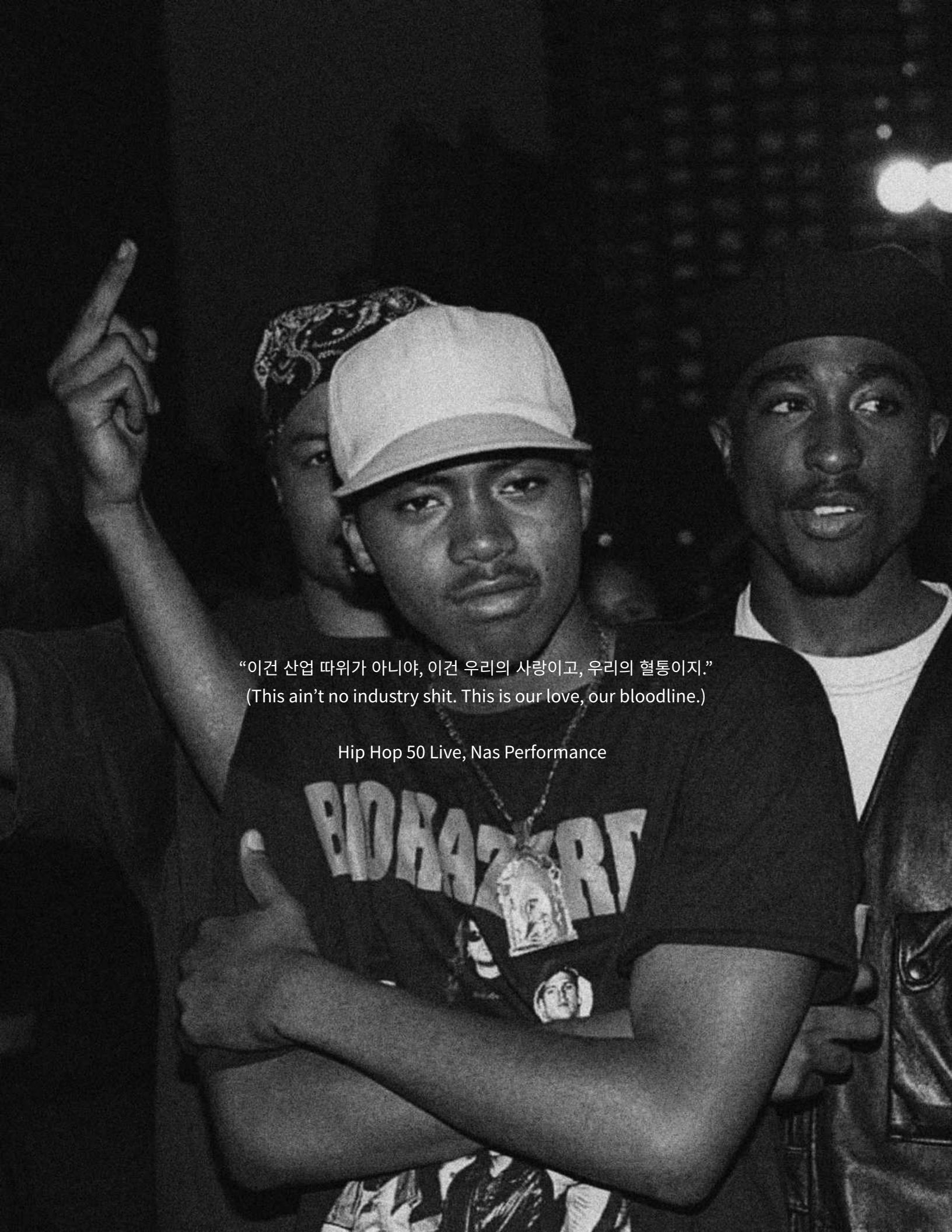
전세계의 수재들에게 노벨상이 있다면 미국의 예술가와 언론인에겐 ‘풀리처상’이라는 최고의 영예가 있다. 다만 대중음악 앨범이 풀리처상을 수여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고, 1943년 음악 부문이 신설된 후에도 힙합 앨범은 단 한번도 수상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2018년, 래퍼로서 풀리처를 최초로 수상한 인물이 등장했다. “현대 미국에서 살아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삶의 복잡성을 포착하는 명작”, 2017년 *< DAMN. >*을 발매한 Kendrick Lamar였다. 이는 비단 Kendrick 개인의 영광이 아닌 힙합 음악 장르 자체의 영광이었다. 빈민가의 파티 음악으로 시작된 이 장르가 45년 후 비로소 최고의 예술성을 지닌 작품을 배출한 장르로 거듭났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앞서 힙합의 탄생을 언급한 바 있다. 힙합의 탄생에 쿨 허크의 공도 물론 있겠지만, 이전부터 오늘날까지도 힙합을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등장한 마법과 같은 사건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Kool Herc의 혁신적인 브레이크 이전에도 힙합의 본류로 사료되는 움직임은 존재했으며, 특정한 탄생일을 지정한다고 하여 힙합 문화가 그 날에 정확히 시작했다고 여기긴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3년 8월 11일 쿨 허크의 블록 파티를 시작일로 정하여 정확히 50년이 지난 날에 거대한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힙합 5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진행한다는 것의 의의는, 힙합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말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끌어냈는지 보여줌에 있다. 힙합이 진정한 문화로서 하나의 거룩한 ‘연대’임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힙합에 있어 ‘연대’란 상당히 재밌는 요소다. 과거의 수많은 디제이들과 래퍼들, 힙합의 산증인들이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서로 아울러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진경을 보기란 흔치 않을 일일 것이다. 64세의 Kurtis Blow가 부르는 “The Break” 위 현대의 비보이들이 그와 함께 춤을 추는 광경, Too \$hort의 “Blow The Whistle”을 리믹스한 Flo Milli의 “B.T.W”가 같은 무대에서 공연되는 장면, Snoop Dogg과 Doug E. Fresh, Slick Rick이 함께 “La Di Da Di”를 부르는 모습을 현대의 사람들은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현대의 래퍼가 과거의 래퍼를 리스펙하는 것, 심지어는 ‘OG’라 칭해질 만한 전설들조차 그들에게 영향을 준 선배들을 존경하는 광경은 자못 신선하게만 느껴진다. 혹자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힙합 이란 이름 하에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에 의아함을 표한다. 그들의 원동력이 무엇이길래, 힙합이라는 문화가 어떤 것이길래, 그토록 많은 이들이 자부심을 가지며 광활하게 확장될 수 있는 것일까. 허나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그들의 ‘연대’인 힙합이 단순한 음악 장르로 치부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아닐까.

최근에 많은 이들에게서 “힙합은 죽었다”는 문장이 잦게 언급되고 있다. 이를 조금 바꿔 말해 보자. “힙합이란 문화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Lil Wayne이 공연을 마무리하며 “너희들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한 말부터 시작하여, 힙합 씬에서 수많은 별이 된 이를 기리는 Wiz Khalifa의 “See You Again” 공연, 그리고 1973년에 태어난 Nas가 1973년에 역사에 남을 파티를 주도한 Kool Herc에게 50년이 지난 시점에 공연장에서 포옹하며 리스펙을 표현하는 장면을 보고서도 그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바통을 이어받은 Kool Herc조차도 단순히 ‘힙합’을 기리는 것이 아닌 양키 스타디움과 브롱스에 올 수 있었음을 축복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며 멈출 수 없음을 말하는 장면에도 그럴 수 있겠는가.

물론 ‘힙합 음악’에 한해, 수많은 방법론과 테크닉의 향상에 의한 급격한 발전을 넘어 오늘날에는 과도기의 위치에 들어서고 있다는 지적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역시 ‘힙합 문화’에서 시초인 파티 음악부터 꾸준한 발전을 거치고 수많은 유행과 쇠퇴를 지나, 여전히 음악이 재생되고 행해지는 오늘날까지 이를 수 있었던 찬란한 역사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 역사의 저편에는 Roxanne’s War에서 파생된 수많은 디스전들, 컨셔스 힙합과 MC의 새로운 의무 개념을 제시한 “The Message”부터 Kendrick Lamar의 “Alright”과 함께한 BLM 운동, 새로운 패션을 주도한 Run-D.M.C.의 “My Adidas”에서 이어진 Kanye West의 “Yeezy” 시리즈까지 수많은 연관성을 지닌 격동의 사건들과 흐름이 존재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힙합 내에서 장르로만 치부되는 것이 아닌 한 문화라고 인정받을 만한 가치와 독자적인 영역이 형성되었으며, 그 안에서 현재까지도 하나의 표현 수단이자 문화로서 함께한다는 의의가 주요했다는 것이다. 물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선대를 따라 내려온 굵직한 흐름과 가치도 시대에 따라 계속 다양화되어왔다. 그렇지만 요는 그 중심이 된 정체성만큼은 보존되어 왔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힙합’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이건 산업 따위가 아니야, 이건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혈통이지.”
(This ain't no industry shit. This is our love, our bloodline.)

Hip Hop 50 Live, Nas Performance

공ZA의 줌터뷰
with 유튜버 우키펑



안녕하세요, 음악 관련 인터뷰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공ZA라고 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우키팝입니다. 저는 힙합엘리 커뮤니티도 굉장히 오래 했었고, 공ZA님의 콘텐츠도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마음 속으로 응원만 하다가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건강 이슈로 휴식기를 가지셨잖아요? 휴식기 동안 어떤 걸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병원 다니면서 누워있던 시간이 대부분이었어요. 제 영상이 자주 올라오는 편은 아니지만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할 때 들어가는 품이 워낙 많아보니 2~3주에 하나씩만 업로드해도 그 기간 동안 쉰 적이 없어요. 보통 하루 꽉 채워서 작업을 하는데도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은 유튜브 시작한지 2년만에 처음으로 그냥 쭉 쉬었던 것 같아요. 쉬고 나니까 감을 잃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감을 되찾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박한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편집이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일인데 이를 쉬지 않고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휴식기 동안은 정말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키팝 채널 콘텐츠 관련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장르에 관한 영상뿐만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나 한국 힙합 아티스트 인터뷰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어떠한 기준으로 섭외가 이루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해외 아티스트 인터뷰는 사실상 제가 직접 컨택한 건 워터파크(Water-parks)라는 팝 펑크 밴드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외의 아티스트들은 제가 짠 질문으로 음반사 관계자 분이 저를 대신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여 영상까지 촬영하고, 저에게 영상을 넘겨 주시면 제가 편집해서 최종 영상을 제작했죠. 그래서 인터뷰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정확한 인터뷰의 개념에 포함되는 건 워터파크스가 유일하네요.

그 밴드와 인터뷰를 진행한 이유는 트래비스 바커(Travis Barker)나 머신 건 켈리(MGK), 올리비아 로드리고(Olivia Rodrigo) 등을 통해 팝 펑크 블루 다시 한 번 팝 씬에 도래했잖아요? 이 흐름을 타고 현지에서 주목받는 밴드를 직접 인터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매니저에게 연락을 했는데 흔쾌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페스티벌도 볼 겸 인터뷰까지 진행하고 왔죠. 한국에는 많이 안 알려진 밴드지만 현지의 팝 펑크 씬에서는 하입을 받던 밴드였었거든요. 그 때 당시까지만 해도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이었는데 저와 인터뷰를 하고 나서 메이저 레이블이랑 계약하고, 마이 케미컬 로맨스(My Chemical Romance)의 오프닝 투어도 맡으면서 밴드가 쭉쭉 커서 굉장히 뿐듯했죠.

국내 인터뷰는 힙합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K-Pop 씬은 앨범이 나오면 인터뷰 문화가 잘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힙합 장르에서는 앨범을 발매한 다음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을 매체가 부족했던 것 같아 제가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인터뷰이었던 원슈타인 님을 제외하고, 뒤에 참여한 아티스트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레이블 쪽에서 먼저 제안이 왔어요. 6월에 아프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파토가 됐죠.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이제 또 회복을 했으니 기세를 이어가야죠.

The image shows a Mac desktop with two open browser windows. The left window is a YouTube video of Olivia Rodrigo. The right window is a Google Doc with a transcription of an interview. Below the windows is a blurred screenshot of a music album cover for 'essential' by Trip McKnight.

인터뷰 View Tools Help Accessibility Request edit access

Q&A입니다

우키팝은 일단 여러분과 음악 얘기를 하려고 만든 채널

31K views 1 year ago #QnA

끌내주는 질문을 감사합니다 ...more

Subscribed 1K Share

Trip McKnight Trip — A Love Letter To You 5

Next History

Upcoming songs

만약 레이블 쪽에서 제안을 주시면 인터뷰 질문 같은 것도 미리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제안만 주시고 인터뷰 콘텐츠는 우키팝 님이 주도하셔서 이끌어가시는 건가요?

제안만 오고 장소, 질문, 편집 등을 제가 100% 다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인터뷰이 분들은 출연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가야 인터뷰 콘텐츠의 맛이 살죠. 제가 또 하청업체 같이 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흥미로운 제안을 주시면 제 입맛대로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제안을 받은 다음 우키팝 님이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해주셨고, 줌터뷰 전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에 많은 영상을 올리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키팝 님께서 가장 만족하시는 영상은 무엇일까요?

일단 영상 하나하나마다 애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완성도 면에서 만족을 했던 영상은 아티스트 소개 중 '아바(ABBA)' 편이였어요. 그 영상에서는 예전 올드 팝의 팬 분들이 보시면 그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을만한 감동 포인트를 살리려고 했어요. 실제로 제 영상을 보고 우셨다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반응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죠. 장르 소개 콘텐츠에서는 하이퍼팝, 풍크, 저지 클럽 같은 영상에서 균형을 되게 잘 맞춘 것 같아요. 장르 소개와 더불어 장르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하고, 군더더기 없이 타이트하게 편집이 잘 된 것 같아 만족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

Trippie Redd - Trip McKnight

본인이 만든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 울었다는 댓글을 보면 제작자 입장에서 큰 뿌듯함이 있을 것 같네요. 채널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해주시면서 줌터뷰 콘텐츠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번째 질문인데요. 가장 최근에 들으신 노래를 소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자기 전에 트리피 레드(Trippie Redd)의 <A Love Letter To You 5> 앨범을 한 번 돌리고 잠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들은 곡은 이 앨범의 마지막 트랙 "Trip McKnight"입니다. 요즘에는 신보가 발매되면 기계적으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모 랩 믹스테이프 시리즈기도 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발매됐다는 소식에 앨범 째로 한 번 들어보았죠.

<A Love Letter To You> 시리즈 중에서는 1, 3, 4가 좋았는데 특히 세 번째 시리즈가 가장 좋아서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완성도도 높고 피처링진도 좋았고, 트리피 레드의 색깔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번 작품도 감성적이었고, 다른 데로 새지 않고 믹스테이프에서 추구했던 상실, Heartbreak라는 주제에 충실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앨범 커버도 좋았고, 인터뷰도 몇 개 찾아서 읽어보았는데 이전보다 성숙해졌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씬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성장할 만한 가능성성이 엿보여 전반적으로 좋은 감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번째 질문: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

DC The Don - FUNERAL / Yeat - Shmunk

안 그래도 제가 목요일마다 힙합엘리 커뮤니티에 금요일에 나오는 신보를 예고하는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트리피 레드의 신보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신보 발매가 한 주 밀려 많은 분들이 아쉬워 하시기도 했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발매가 되어 우키팝 님께서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로 소개해주실 수 있었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는 어떤 곡이었을까요?



누구에겐 향수, 누구에겐 전설 | 이들이 40년만에 돌아온 이유 | ABBA(아바) 이야기

우키팝 272K subscribers Subscribed 9.8K Share ...



디씨 더 돈(DC The Don)이라는 래퍼의 <FUNERAL> 앨범의 셀프 타이틀 트랙을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어요. 이 곡도 조금 짬뽕인데요. 이 모 랩과 팝 평크 스타일이 섞인 요즘 힙합 느낌이고, 트리피 레드가 좀 더 대중적인 노선으로 간다면 이런 감성이겠구나 싶었어요.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신보를 체크할 때 좋아서 보관함에 저장해놨는데, 최근 들어 보관함에 있는 노래를 다시 들어보면서 또 꽂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 일주일 동안 들을 게 없고, 시간이 뜬다 싶으면 이 곡을 들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트(Yeat)와 영보이 네버 브로크 어게인(YoungBoy Never Broke Again)이 함께한 "Shmunk"인데요. 많이 들은 걸로 따지면 이 곡을 더 자주 들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나온 앨범 <AfterLyfe>의 수록곡인데, 올해 초에 LA에 갔을 때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꽂히게 되었다가 제가 보통 방에서만 작업을 하니까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긴 편이거든요. 정신적으로 털ㄴ업하고 싶을 때 항상 이 곡을 들곤 하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듣게 되었던 것 같네요. 영보이 네버 브로크 어게인도 이 곡에서처럼 최근에 레이지 스타일을 많이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앨범 커버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육신은 사라졌지만 Ice는 남아있다는 게 아이코닉한 것 같아요.

Ice는 영원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노래로는 털ㄴ업할 수 있는 두 곡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쉬면서 이런 스타일의 곡들을 많이 즐겨들으셨나 보네요?

네, 6월부터 오래 쉬었으니까 이제 달려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쳐지는 트랙은 잘 안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세번째 질문: 나만 알고 있는 노래 Peking Duk - Sugar

본인의 텐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곡들 위주로 감상했다고 말씀해주시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노래로는 어떤 곡을 골라주셨을까요?

패킹 덕(Peking Duk)의 “Sugar”라는 트랙을 선정해보았는데요. 제가 벅스라는 한국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악 에디터로 근무했었는데, 직업적으로 신곡들을 감상할 일이 많거든요. 어느 날처럼 발매된 신곡들을 듣고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Y2K 감성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영화 [바비]도 발매되었고, 이전보다는 그러한 분위기들의 노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때 당시만 해도 되게 신선한 감성이었거든요. 패킹 덕이라는 팀 자체나 피처링으로 참여하신 잭 리버(Jack River)도 메이저한 아티스트는 아니다 보니 곡이 뜨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나만의 곡으로 간직하는 느낌이 생겼어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벅스에서 진행했던 이런저런 콘텐츠에서 선곡하고는 했었는데, 당시에는 발매되고 조용히 사라진 감이 없잖아 있었죠. 오히려 요즘 나왔으면 좀 더 성공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지금은 유튜브 조회수가 95만 회네요.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4만회였는데, 향수를 자극하는 Y2K의 수혜를 받긴 받았네요. (웃음)

뮤직비디오나 패션도 그렇고 그 때 그 감성이 있네요. 벅스의 뮤직 에디터로 활동하셨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직업을 그만 두고 우�키팝이라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 계기도 있으셨을까요?

제가 벅스에 재직했을 때가 한창 플레이리스트 유튜버들이 생겨나던 시기였어요. ‘떼껄룩’이라는 채널이 생긴 후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걸 보고 이제 이런 게 유행이 되고 리스닝 문화가 점차 바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essential;’이라는 채널을 만들었고, 그게 나름 히트를 쳤고, 좋게 말하면 회사에서 인정을 점차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우�키팝’ 같은 대중친화적이면서 음악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주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정보를 매거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유튜브로 넘어올 시기라고 판단하고 회사에 직원을 새로 뽑아달라고 했어요. 당시 팀 막내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건방진 제안일 수도 있지만 이사님에게 가서 ‘새로 팀을 만들어주세요, 직원을 뽑아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는 반려가 됐어요. 대신 ‘1인 팀, 1인 팀장을 시켜줄테니까 한번 해봐라’라고 결론이 났는데, 저는 혼자 진행할 거면 회사에 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잘 되건 못 되건 제가 혼자서 열심히 편집한 영상을 회사에 컨펌을 받아야 된다는 일련의 과정을 겪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1인 채널을 만들어 회사에서 운영할 바에는 퇴사해서 내 개인 채널을 만들자고 결심했고, 벅스에서 일할 때 만난 지금의 아내와 같이 출퇴근을 하면서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퇴사해서 내 개인 콘텐츠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막상 퇴사하려면 겁나잖아요? (웃음) 그런데 와이프가 본인이 돈을 벌테니 퇴사한 다음 받은 퇴직금으로 1년 정도는 수익 창출이 안 나도 좋으니 일단 한 번 채널 운영을 해보라고 제안해주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제 인생에서 가장 과감한 결정을 내렸죠.

한창 essential; 채널이 너무 신선한 콘셉트였고, 한창 잘 되고 있을 때 라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사님과 대표님이 와서 말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미련 없이 나와서 우�키팝 채널을 만들었고, 아직도 이 채널이 음악 문화에 필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회사에서 나와 본인의 개인 채널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텐데, 과감하지만 정확한 판단이였네요. 또,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용기를 준 든든한 지원군의 존재도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키팝 채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의 다양한 장르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곳이 되었고, 이후 비슷한 채널이 나오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질문: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 언에듀케이티드 키드 - Uneducated World Nirvana - Smells Like Teen Spirit

나만 알고 있는 노래로는 Y2K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패킹 덕의 “Sugar”를 골라주셨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인데요. 최근에 라이브 공연을 많이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주시나요?

가장 최근에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 부산에서 열렸던 힙합 50주년 행사도 다녀왔어요.

essential:

essential; 

@essentialme 1.23M subscribers 321 videos
better music, better mood >
bugs.kr/lytbugs and 3 more links



우키팝

@wookipop 272K subscribers 109 videos
함께 나눠요!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
instagram.com/wookipop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을 뽑아보자면 3월에 갔던 롤링 라우드 LA의 플레이보이 카티(Playboi Carti)의 무대와 7월에 스페인에서 열린 매드 쿨 페스티벌에서 보았던 샘 스미스(Sam Smith)예요. 전자 같은 경우는 기대도 많이 했었고, 2016~17년을 기점으로 본인의 캐릭터를 락스타로 내세우는 래퍼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릴 우지 버트(Lil Uzi Vert)나 플레이보이 카티처럼요. 그 중에서도 플레이보이 카티가 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끝을 한 번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대 자체는 작년과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부분 중 하나는 관객들의 리액션이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미치더라고요. 카티가 소리 지르고 할 때마다 옷을 벗는다든지, 모쉬핏을 하는 등 그런 모습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후자는 페스티벌이다 보니 많은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봤는데, 샘 스미스의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개인 콘서트처럼 준비를 해왔더라구요. 의상도 한 10벌 정도 갈아입었을 거예요. 뮤지컬처럼 커밍 아웃을 하기 이전인 1집의 명곡들을 자신을 꽂꽁 싸맨 채로 부르면서 무대의 막이 올랐고, 점점 옷을 하나씩 벗어가면서 커리어 중후반부들로 무대를 이어나갔죠. 무대 막바지에는 준비한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티팬티 같은 의상만 입은 채로 “Unholy”도 불렀어요.

말로만 들으면 되게 기괴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장에서 그 공연을 보니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삶과 투쟁 일지를 잘 표현해낸 것 같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일단 실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퍼포먼스를 차치하더라도 한 명의 소울 싱어로서 대 가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 주변 분들을 살펴 보니 입을 벌리고 공연을 감상할 정도로 대단한 몰입감을 주는 샘 스미스였습니다.

샘 스미스의 공연 후기를 들어보니 의상을 벗어던짐으로써 자신이 대중 음악 씬에 커밍 아웃을 하기 전후의 과정들을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기억에 남았던 공연들도 소개해주셨고, 라이브로 직접 듣고 싶은 노래는 어떤 곡을 골라주셨나요?

저는 언에듀케이티드 키드의 <Uneducated World>에 수록된 곡들을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어요. 최근에 5주년 기념으로 디렉스 버전도 발매 되었는데, 이 앨범을 정말 좋아하고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 앨범 관련 라이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려다가 못 가게 되었어요. 재키와이와 폴 블랑코도 참여했다고 들었구요. 그 당시의 언에듀케이티드 키드의 에너지와 날 것의 느낌을 직접 감상하지 못 한 게 아쉬워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너바나(Nirvana)의 “Smells Like Teen Spirit” 같은 명곡들도 직접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면 <Nevermind>에 수록된 털ㄴ업되는 곡들을 시애틀 백인들과 함께 감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느낌을 비슷하게라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시애틀을 총 두 번 방문했어요. 처음 혼자 갔을 때와 두 번째로 와이프와 함께 갔을 때 모두 근교의 클럽도 가보고, 유명한 공연 베뉴도 돌아보기도 했는데 제가 영상에서 봤던 90년대의 시애틀 느낌은 안 나더라구요. 얼터너티브 락 장르가 한창 떠오르던 시기에 파라마운트에서 진행했던 라이브 영상을 보면 비디오로만 봐도 에너지가 뚝하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너바나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든 한 번 라이브로 보고 싶다, 그 때 당시의 사람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발매된 노래 중에는 라이브로 듣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요즘은 보여지는 음악, 틱톡 형 음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처럼 관중들과 교감하면서 거대한 에너지를 교환하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덜해진 거죠. 어떤 아티스트가 라이브를 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신곡이 나왔다고 했을 때 유튜브에 ‘~~ 라이브’라고만 검색해도 관련 영상이 꽉 뜨기도 하구요. 그런 식으로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고 싶은 건 정말 그 현장의 뜨거운 에너지예요. 큰 공연장보다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을 되게 좋아하고, 컬트적인 인기를 얻는 아티스트를 좋아해서 요즘에 어떤 뮤지션이 그 포지션에 있는지 찾고 있어요.

최근에 롤링 라우드 관람 차 LA에 갔을 때도 브이로그 영상에 담지 않았지만 첫 날에 토브 로(Tove Lo)와 슬레이터(Slayyyter)라는 퀴어 아티스트들의 개인 공연을 보러 갔었거든요. 둘이 작은 공연장에서 무대를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관객들이 300명 정도 된다고 치면 전부 퀴어예요. 남자들은 다 티팬티 입고 오고.. (웃음) 하지만 그 아티스트들의 그 팬들이 모인 데 제가 속해있다는 게 너무 좋고, 꼭 퀴어와 관련이 없더라도 작은 공연장에서 열리는 후드 래퍼의 공연이 있다고 하면 꼭 한 번 가보기도 하죠. 그럼 또 관객들이 분위기가 빽센 흑인들로 가득 차 있으니,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들만의 문화를 경험하는 걸 중시하는 것 같아요. 제게는 ‘나 특정 아티스트 봤다’보다는 특정 아티스트가 공연하는 곳에서 그 사람의 팬들로만 이루어진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는 게 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wookipop 인스타그램

숏폼 콘텐츠를 겨냥한 곡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아티스트와 관객들이 서로 교감하고 에너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노래를 좀 더 선호하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잘 못 찾은 것도 그렇게 느낀 데 한 몫 하겠죠. 예전에는 디깅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에는 외부 일도 많다 보니 메이저 레이블에서 발매하는 큰 앨범 위주로만 동향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작은 공연장에 열리는 자기 색깔이 센 아티스트와 그 사람의 진정한 팬들이 모인 공연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라이브로 듣고 싶은 곡은 없다기보다는 못 찾았다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한 듯 하네요. 다시 디깅을 열심히 해서 아직 너무 크지는 않지만 자기 팬 베이스는 탄탄한 아티스트를 찾아 그 공연을 가보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질문: 여행에 관련된 노래

리플레이LEEPLAY - 존 메이어와 초원 위 드라이브

언에듀케이티드 키드, 너바나, 소규모 공연에 대한 취향, 디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여행에 관련된 노래인데요. 여행 가시는 건 좋아하시나요?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일 있을 때 외국 나가서 하루이틀 돌아다니다 보면 리프레쉬가 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달에 스페イン에서 열린 매드쿨 페스티벌에 다녀왔는데, 그게 하나투어와 함께 제가 13분을 모시고 갔던 페스티벌 관람 겸 여행이었어요. 스페인이 워낙 덥다 보니까 페스티벌은 오후 여섯 시부터 새벽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까지 시간이 비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까지 마드리드 시내를 돌아다니곤 했었어요.

생각 없이 걸어다니고, 음악 듣고, 외국 사람들을 구경했던 마드리드의 일상 속 순간들이 기억에 남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행에 갔을 때는 존 메이어(John Mayer)의 곡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리플레이LEEPLAY라는 플레이리스트 유튜버 분이 계신데, 이 분의 존 메이어 플레이리스트가 아주 야무집니다. 이 플레이리스트는 여행을 갈 때도 듣고, 여행 간 기분을 내고 싶을 때도 듣게 돼요. 이 분이 연주하는 걸 들으면 선선한 느낌이 나는 듯 해요. 목소리도 그렇고 웬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가볍게 듣기 좋은데 하나하나 들어보면 섬세하게 만들어진 곡들에서 품위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블루지한 기타 사운드가 들어가 있다보니 좀 더 여행의 느낌이 사는 것 같고, 공들여서 만든 묵직한 느낌이지만 언제나 들어도 부담이 전혀 없는 매력이 있죠. 도시 여행, 오프로드 여행, 드라이브 등 어딘가로 떠나는 순간에는 항상 어울리는 최고의 여행 맞춤형 플레이리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온 경쾌한 텐션의 “New Light”뿐만 아니라 차분한 분위기의 “Gravity” 등 다양한 느낌이 연출되기도 하고, 플레이리스트에 수록된 곡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여섯번째 질문: 취미와 관련된 노래

Graves Ives - On The Ground

꾸안꾸 스타일의 여행에 어울리는 존 메이어의 곡들을 여행에 관련된 노래로 골라주셨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볼게요. 취미와 관련된 노래인데요. 우�키팝 님의 취미는 어떻게 되실까요?

원래는 축구를 좋아해서 많이 했었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정말 방에만 있었어요. 제 방에서 매일 작업하고 음악 듣고 책 읽는 것만 반복해서 어이 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취미라고 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취미가 일이 되다 보니 아직 취미와 관련된 노래를 선곡을 못 했는데, 공 ZA님과 이야기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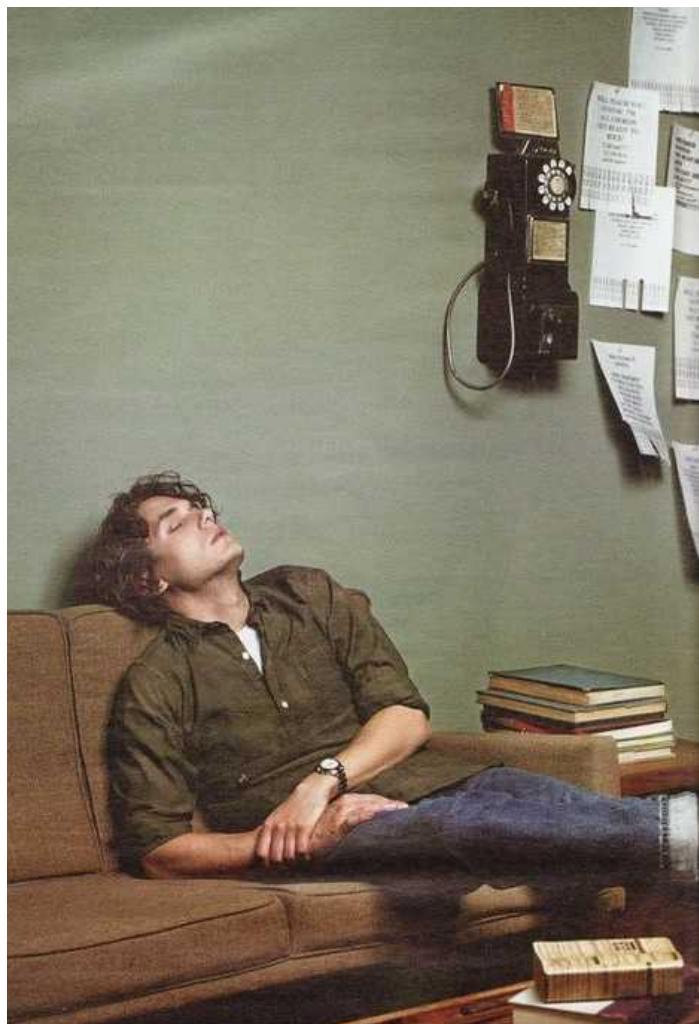
아까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처럼 아직 못 찾으신 거군요. 우선 예전에는 축구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포지션은 어딜 보셨나요?

저는 스트라이커 아니면 왼쪽 풀백을 주로 봤었습니다. 보통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는 편이고, 수비를 잘 못 합니다. (웃음)

(웃음) 돌아오지 않는 풀백이네요. 저도 예전에 중학교 대표로 골키퍼를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취미와 관련된 노래가 당장 떠오르지 않으시면 이런 질문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우�키팝 님이 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취미를 가져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저희 동네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올해 외국 나갈 일이 많았어서 한국에서 나온 해외 국가별 가이드북을 사서 읽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동네에도 이런 가이드북이 존재한다면 재밌겠다는 생각으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작업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가이드북을 만드는 걸 취미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이 작업과 관련된 노래로는 그레이스 아이브스(Grace Ives)의 “On The Ground”라는 인디 팝 장르의 트랙이 떠오르네요. 작년에 발매된 곡이고, 뉴욕의 힙스터 같은 분이세요. 피치포크 같은 웹진에서 엄청 하입을 줘서 알게 되었는데 2000년대 초반의 약간 촌스러우면서도 컬러풀한 색채를 최근의 감성을 담아 잘 풀어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북을 구상을 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음악으로만 들어서 뮤직비디오는 오늘 처음 보는데 의도한 거겠지만 상상 이상으로 촌스럽네요. (웃음)



일곱번째 질문: 과거/현재/미래를 대표하는 노래

Matthew Dear - Bad Ones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가이드북 제작까지 말씀해주셨고, 관련된 노래로는 “On The Ground”라는 곡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노래인데요. 혹시 세 가지 테마 전부 골라주셨을까요?

저는 과거 시점만 고르기는 했어요. 관련해서는 매튜 디어(Matthew Dear)의 “Bad Ones”라는 곡으로 선정해보았습니다. 티건 앤 사라(Tegan and Sara)와 함께 한 곡이고, 이건 제가 벅스에서 일하면서 essential; 채널 제작 작업을 할 때 많이 들었었어요. 레귤러 타임에는 그 작업을 못 하고, 주말에 몰래 나와서 작업하고 그랬거든요. 당시에는 싱글이었을 때라 좀 더 외롭기도 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저에게는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에 나와서 일하실 정도로 essential;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원동력이 있었을까요?

새로운 움직임이 생기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하고 싶고, 인정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채널을 만들면서 음악적인 다양성을 퍼뜨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차트 위주의 청취를 넘어서 여러 무드, 테마, 바이브에 맞는 노래들을 들려드리고 싶었던 욕심이 essential; 채널 제작으로 이어졌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틀 수 있고, 제가 선곡한 음악들이 일상에 스며드는 채널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제 주변 지인이나 친누나도 essential; 채널에 있는 영상을 자주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상에 스며들고 싶다는 우�키팝 님의 목적은 잘 달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Bad Ones”는 채널 제작 작업을 할 때 주로 들으셨던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출퇴근하면서도 자주 들었어요. 아주 과거까지는 아니지만 3~5년 전의 시간을 떠올리게 해주는 곡이네요.

과거를 대표하는 곡으로 매튜 디어의 곡을 골라주셨고,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노래는 왜 골라주지 않았으셨나요?

현재와 미래의 제가 딱히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최근에 너무 정신 없기도 하고 달리기만 하는 것 같아서요. 고르고 싶었는데 억지로 선곡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과거를 대표하는 노래만 골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인생 곡 / 인생 앨범

인생 곡: Sky Ferreira - You're Not The One

인생 앨범: Kanye West -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
Aqua - Aquarium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릴 차례인데요. 본인의 인생 곡 혹은 인생 앨범을 소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인생 곡과 인생 앨범을 모두 골라보았어요. 인생 곡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스카이 페레이라(Sky Ferreira)의 “You're Not The One”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음악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방향은 모르겠는 상태로 허무하게 졸업을 하고, YG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우울했다가 보다는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에너지를 한 곳에 딱 집중해서 쓸지 못 했죠. 음악 업계에 들어가는 방법은 모르겠고 스펙은 없고.. 어떻게든 되겠지하면서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라나 델 레이(Lana Del Rey)가 퍼뜨린 새드 코어의 영향으로 비슷한 스타일의 여자 아티스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졌을 때라서 그 중에 스카이 페레이라가 한 축을 담당했었죠. 이 곡의 감성이 종잡을 수 없이 방황하던 시기의 저를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아 그 때 당시에 자주 즐겨들었습니다.

과거의 우�키팝 님처럼 음악 업계에 발을 들이고 싶지만 어떻게 발을 내딛어야 하는지 방법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도 사실 걸蠹기 수준이지만 업계에 있으면서 느꼈던 건 음악 관련 직종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콘텐츠, 유통, 레이블, 스트리밍 서비스 등.. 최근에 스포티파이도 한국에 들어왔다 보니 그 쪽 관련 업무도 있구요. 음악 업계가 생각보다 크고, 직종이 다양하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외국어를 잘 하면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본인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 쪽 분야는 끊임없이 새로운 게 나와야 하는 틀 끊는 곳이잖아요? 리스너 분들의 반응도 거세고, 아티스트의 입장, 중간에서의 업계 등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하다 보니 항상 정신을 차려야하고, 꾸준히 트렌드의 방향을 읽어야 하죠.

또, 음악이 좋다/싫다를 넘어서 그 음악이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나 신문을 자주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음악은 단순히 청각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음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들이 있는데, 이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빈지노의 <NOWITZKI>가 발매되었을 때 단순히 그 앨범을 한 번 듣고 음악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빈지노가 살아온 생애, 음악적인 변화, 최근의 랩 트렌드와 빈지노의 상관관계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감히 해봅니다.

음악 업계에 발을 들이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인생 앨범으로는 어떤 음반을 골라주셨을까요?

두 앨범을 선정했는데, 우선 칸예 웨스트(Kanye West)의 5집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를 골라보았습니다. 이 앨범에는 감동이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시상식 난동 사건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음에도 무너지지 않고 멋진 앨범을 들고 왔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특히 요즘 같이 캔슬 컬쳐, 흠이 보이는 순간 쓰러뜨리려는 문화가 심한 시기에 음악에만 집중하면서 자신의 삶을 음반에 담았고, 뻔뻔하게 자신의 동료들을 모아 최고의 작품으로 복귀를 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물론 음악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앨범에 담긴 특유의 에너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처럼 이 앨범이 명반이라고 해서 최근에 접한 것이 아니라, 저는 발매된 시기에 바로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너지려다가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순간을 다 생생하게 지켜봐왔거든요. 그래서 오는 감흥이 더욱 큰 것 같아 인생 앨범으로 골라보았습니다.

다음 앨범은 아쿠아(Aqua)라는 북유럽 댄스 그룹의 <Aquarium>이라는 작품을 골라보았습니다. “Barbie Girl”, “Doctor Jones”가 수된 앨범인데 정말 좋습니다. 음악 자체의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어릴 때 즐겨들었던 노래라서 그런지 그 시절의 생각이 많이 나고, 멜로디는 정말 대중적인데 가사가 선정적이란 말이죠. 솔직하면서도 야마가 있는 곡이라서 음악이 늙지 않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를 대표하는 노래보다 좀 더 이전 시절의 과거를 대표하는 곡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아쿠아뿐만 아니라 퀸(Queen)의 음악도 아버지가 많이 들려주셨던 기억도 있고, 어린시절의 이런저런 추억들이 떠오르는 앨범입니다. 앨범에서 한 곡을 골라보자면 최근 영화 [바비] 때문에 다시 회자가 되었던 “Barbie Girl”을 고르겠습니다. 정말 잘 만든 팝 넘버예요. 영화에는 크레딧이 올라갈 때 니키 미나즈(Nicki Minaj)와 아이스 스파이스(Ice Spice)가 리믹스한 버전이 나오는데 정말 좋아요.

Outro : 인터뷰 참여 소감

인생 곡과 앨범을 골라주시면서 오늘의 인터뷰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인터뷰에 직접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았고, 공ZA님에 대한 정보가 크게 없다 보니 긴장 아닌 긴장을 했었어요. (웃음) 이렇게 진행하시는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인터뷰를 너무 잘 끌어주셔서 같은 인터뷰어 입장으로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간만에 제 이야기를 하는 점도 좋았어요. 더욱 많은 분들을 줌터뷰를 통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터뷰어 입장으로서 같은 인터뷰어를 인터뷰하는 게 참 색달랐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터뷰에서 배울 점이 있었다고 말씀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우키팝 님이 진행하시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대하며 오늘의 인터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줌터뷰에 참여해주신 우키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Editor's Picks

Haus Of Matters

Apple Music

Tracklist:

1. Cookie Kawaii - Moon Dance
2. FKA twigs - fallen alien
3. Jonny Greenwood - Future Markets
4. Jonny Greenwood - Oil
5. Jonny Greenwood - Stranded the Line
6. Sufjan Stevens - Death with Dignity
7. Sufjan Stevens - Eugene
8. Sufjan Stevens - No Shade in the Shadow of The Cross
9. Sampha - Incomplete Kisses
10. Blood Orange - Family (feat. Janet Mock)

하우스 오브 매터스 에디터들이 직접 뽑은
9월 달 에디터스 픽 플레이리스트는 아래의 QR 코드를
통해 애플뮤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ditor's Note by SNXO



Club Soda, Vol. 2

Cookiee Kawaii

Editor SongChico

- | | | |
|------------------------|---------------------------------|---------------------|
| 1 Intro | 5 Moon Dance | 9 She's From Jersey |
| 2 Energy, Pt. 3 | 6 Vibe (If I Back It Up) | 10 The Bonus Track |
| 3 Vacation | 7 Vibe (If I Back It Up) | |
| 4 Quarantine and Chill | 8 Rather Be | |

<Club Soda Vol.2>는 저지클럽 (Jersey Club)의 본고장 뉴저지에서 태어난 쿠키 카와이 (Cookiee Kawaii)의 앨범으로 틱톡에서 바이럴되어 세상에 자신을 알린 “Vibe”가 수록된 첫번째 시리즈에 이은 연작이다. 쿠키 카와이가 줄곧 보여주던 저지클럽과 힙합/R&B를 섞은 음악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깊은 메시지를 담았기 보다는 그때 그때 즐기기 좋은 클럽 음악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 앨범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과하지 않음’인데 신나는 분위기를 유지하더라도 절대 앞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차가운 톤을 유지하며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볼티모어클럽 마저 빠른 BPM으로 넘어오고 있는 시대에서 저지클럽과 볼티모어클럽의 차이점이라면 다듬어진듯한 사운드와 보컬의 비중 정도를 제시할수 있겠는데 그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앨범이 쿠키 카와이의 <Club Soda Vol.2>였다.



MAGDALENE

FKA twigs

Editor 온암

- | | | |
|------------------|-----------------------|------------------|
| 1 thousand eyes | 4 holy terrain | 7 mirrored heart |
| 2 home with you | 5 mary magdalene | 8 daybed |
| 3 sad day | 6 fallen alien | 9 cellophane |

짙어진 호소력, 향상된 음악적 다양성, 자전적 서사, 2019년 최고의 앨범. <MAGDALENE>에 대한 나의 몇 가지 단상이다. <LP1>과 같은 걸출한 데뷔 앨범을 낸 아티스트가 바로 다음 앨범으로 이전의 그녀를 가뿐히 뛰어넘었다면, 열린 입을 대체 어찌 다물어야 할까? “mary magdalene”와 “fallen alien”의 전자음악 계열 프로덕션이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긴 하나, 결국 앨범을 이끄는 힘은 트워스의 보컬과 마리아 막달레나의 삶을 그녀에게 대입시킨 모범적인 테마 설정에 있다. 상처 입은 자아의 예술적 승화와 치유, 막달레나의 이름이 성모와 같은 것은 우연이었을까? 이 앨범이 Lana Del Rey의 <Norman Fucking Rockwell!>과 같은 해에 나온 것은 우연이었을까? 그녀의 음악에서는 여전히 Kate Bush와 Bjork의 향취가 느껴지지만, 처음부터 그러했듯 트워스는 제 2의 그들 정도의 인물이 아니다.



There Will Be Blood

Jonny Greenwood

Editor Indie Aisle

1 Open Spaces	5 Henry Plainview	9 HW / Hope of New Fields
2 Future Markets	6 There Will Be Blood	10 Stranded the Line
3 Prospectors Arrive	7 Oil	11 Prospector's Quartet
4 Eat Him by His Own	8 Proven Lands	

조니 그린우드(Jonny Greenwood)의 사운드트랙 <There Will Be Blood>는 표독스럽고 울적한 분위기의 광맥이 그 깊숙한 곳부터 꿈틀대는 듯한 느낌을 준다. 피인지 석유인지 모를 영화 속 액체처럼, 칠혹 같은 불쾌함과 악독함의 선율들이 청각을 사정 없이 후려치는 까닭이다. 이토록 광막하고 둔탁한 음악이 세상에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PTA의 파괴적인 연출에 이유를 갖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린우드의 타고난 현장감에 좀 더 지분을 둔다. 그건 아마 각종 관현악과 광폭한 드럼으로 1920년대 석유 전쟁을 표현한 그린우드의 작법이, 그가 진작 선보였던 신디사이저 위주의 창조보다 퍽 원초적이면서도 재현에 충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TWBB의 사운드트랙은 가히 압도적인 몰입감을 자랑한다. 휘몰아치는 영화의 전개가 무색할 정도의, 실로 무시무시한 표현력이 언어와 스크린의 풍토를 걷어내고 온전한 청각의 재현을 구체화한 인상이다. 그 덕에 관객은 단순 신경이 거슬리는 정도를 넘어 공포감마저 느끼게 된다. 이제 그린우드는 TWBB의 명실상부한 공신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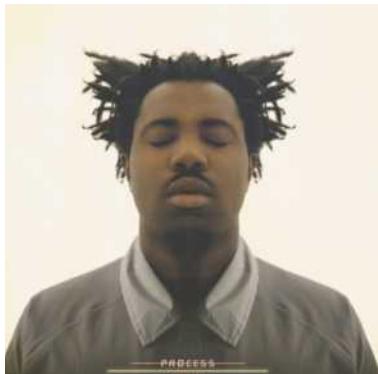
Carrie & Lowell

Sufjan Stevens

Editor Indie Aisle

1 Death with Dignity	5 Eugene	9 John My Beloved
2 Should Have Known Better	6 Fourth of July	10 No Shade in the Shadow of The Cross
3 All of Me Wants All of You	7 The Only Thing	11 Blue Bucket of Gold
4 Drawn to the Blood	8 Carrie & Lowell	

난 종종 수프얀 스티븐스(Sufjan Stevens)의 <Carrie & Lowell>을 듣고 <Illinois>의 향기를 느낀다. 그런 행위는 단순히 같은 아티스트의 아트워크라는 교집합에서 파생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어떤 아티스트가 그러하듯 개인적 서사가 깃든 그의 음악엔 누구도 재현할 수 없는 파고와 의뭉스러움만이 남는다. 혹자는 치부로 삼을 가정사의 고해가 앨범에 깃든 순간, 앨범의 음악적 광륜은 이미 저깊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수프얀은 단순한 가정사의 전달 이상을 두 어머니의 이름 앞에 새긴다. 성적이고 암담하며, 마침내 파괴적인 언어의 끄트머리를 씹어대는 그의 목소리엔 어린 시절과의 해후보다는 복합적 저념들의 중첩이 있다. 그러나 끝끝내 결론에 도달하면 소름 끼치도록 공허한 감정의 잣아들이 찾아온다. 역설의 역설을 고뇌하듯, 황홀경을 선사한 오케스트라의 열기가 공기 중으로 사라져 버리듯, 수프얀의 상념도 결국 정답 없는 복합적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이 앨범이 좋다. 우리의 생각은 어쩌면 잊혀진 추억 같은 것이 아닐까.



Process

Sampha

Editor EastBrit

1 Plastic 100 C	5 Take Me Inside	9 Incomplete Kisses
2 Blood On Me	6 Reverse Faults	10 What Shouldn't I Be
3 Kora Sings	7 Under	11 In-between and Overseas
4 (No One Knows Me) Like the Piano	8 Timmy's Prayer	12 Answer

요즈음 이렇게 자주 보이는 아티스트가 없다. 굵직한 스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샘파(Sampha)는 본인 특유의 허스키한 보컬을 활용해 어딘가 모르게 공허감이 느껴지는 일렉트로니카, 얼터너티브 R&B 앨범 *<Process>*를 탄생시켰다. 입문하기 분명 어려운 무드임에도 그의 매력적이면서도 차가운 보컬을 살려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어렵지 않은 앨범이다. 첫 트랙인 “Plastic 100°C”는 일렉트로니카의 정수 *<In Rainbows>*의 기타 리프와 유사성이 짙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쓸쓸함을 자아내어 전체적인 앨범의 방향성을 잡아준다. 칸예 웨스트(Kanye West)가 프로듀싱한 8번 트랙 “Timmy’s Player”에서는 *<Yeezus>*에서 찾을 수 있는 노이즈 가득한 킥과 함께 곡의 후반부로 갈수록 보컬이 고조되어 다음 트랙 “Incomplete Kisses”에서 그 풍부함을 터트린다. 필자는 이 앨범이 샘파가 참여한 *<Utopia>*에서의 서정적이면서도 어두운 분위기도 역시 느껴지기에 힙합 리스너들도 무리 없이 손이 가리라 예상된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샘파를 그의 정규 1집 *<Process>*로 가볍게 알아보는 게 어떨까.



Negro Swan

Blood Orange

Editor ryuzimoto

1 Orlando	5 Jewelry	9 Chewing Gum	13 Runnin'
2 Saint	6 Family	10 Holy Will	14 Out Of Your League
3 Take Your Time	7 Charcoal Baby	11 Dagenham Dream	15 Minetta Creek
4 Hope	8 Vulture Baby	12 Nappy Wonder	16 Smo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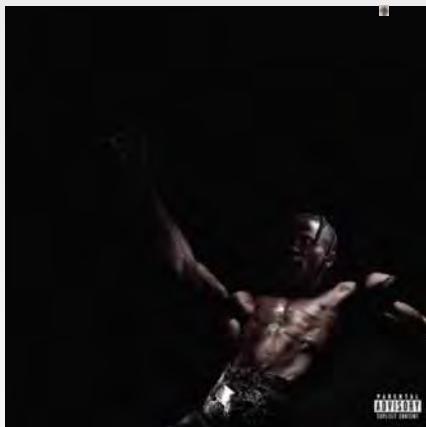
백조의 날개,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흰색의 자동차 그리고 검은 피부. 이는 블러드 오렌지(Blood Orange)가 2018년 발매한 앨범 *<Negro Swan>* 재킷에 담긴 모습이다. 마치 의도된 듯한 상반된 배치는 인종과 성별이라는 확고한 주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과거에도 많은 예술가가 이 같은 주제를 다양한 방면으로 다루었고 그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곤 했다. 물론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에 동시에 연쇄작용으로 많은 논란도 뒤따라왔다. 하지만 적어도 팝, 알앤비, 힙합, 흑크 등 다양한 장르를 매끄럽게 녹여낸 이 앨범은 모두를 매료시켰으며 이는 소수자들의 향한 블러드 오렌지의 외침을 자연스레 뒷받침해 주었다. 2017년에는 로직(Logic)의 “Black Spiderman”이 그리고 일 년 후인 18년에는 블러드 오렌지의 검은 백조, *<Negro Swan>*이 있었다.

LECRITIC

HIPHOPLE's Own Metacritic

힙합엘리의 메타크리틱

Founded by 예림



UTOPIA

Travis Scott

Release: 2023 07 28

Length: 73:27

Tracks: 19

Record Label: Cactus Jack

Records under excl. license
to Epic Records



Scaring the Hoes (+DLC)

JPEGMAFIA & Danny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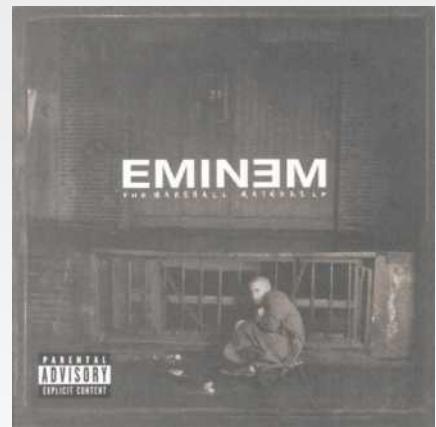
Release: 2023 03 24

(DLC: 2023 07 11)

Length: 36:18 + 15:25

Tracks: 14 + 4

Record Label: PEGGY under
excl. license to AWAL Recordings
America



The Marshall Mathers LP

Eminem

Release: 2000 05 23

Length: 72:04

Tracks: 18

Record Label: Aftermath Ente-
tainment / Interscope Records

Top Tracks

- 1 FE!N (59.4%)
- 2 HYAENA(56.3%)
- 3 TELEKINESIS (53.%)
- 4 MY EYES (43.8%)
- 5 MODERN JAM (34.4%)

User Score

78.2 / 100

Top Tracks

- 1 Lean Beef Patty (60.0%)
- 2 Garbage Pale Kids (53.3%)
- 3 God Loves You (46.7%)
- 4 SCARING THE HOES (33.3%)
- 4 Burfict! (33.3%)
- 4 Kingdom Hearts Key (33.3%)

User Score

95.3 / 100

Top Tracks

- 1 Stan (70.0%)
- 2 The Real Slim Shady (65.0%)
- 3 Kill You (60.0%)
- 4 The Way I Am (30.0%)
- 4 I'm Back (30.0%)
- 4 Bitch Please 2 (30.0%)

User Score

88.9 / 100

자세한 앨범 리뷰 및 트랙 리뷰는 힙합엘리 국외
게시판 예림님의 LECRETIC 시리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저 참여로 이루어지는 컨텐츠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astBrit

현실은 해군이지만 음악이라는 업을 삼으려는 사람으로서 뭐라도 하고 싶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건 음악과 영화입니다. 이번에 맡은 분량은 적지만 점진적으로 양질의 글을 생산해 내면서 저도 식견을 넓히고 KHL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오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Favourite Artists

Kanye West, Tyler, The Creator

Frank Ocean, Michael Jackson

Bruno Mars, The Weeknd, Radiohead

Favourite Albums

Michael Jackson - Thriller

Kanye West - Graduation

Indie Aisle

예전에 누군가 ‘모든 예술은 이어져 있다’라고 말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매거진에 들어온 것과 연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을 툭툭 털고 음악 필진으로 참여하게 된 뒷심일 겁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저는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 연출을 꿈꾸는 학생입니다. 매거진에 제 자그마한 글들을 기고하는 것이 제 삶에 좋은 영향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Favourite Artists

Frank Ocean, Thom Yorke, Tyler the Creator

Moses Somney, Have A Nice Life, Pink Floyd

Favourite Albums

Frank Ocean- Blonde, Thom Yorke - Anima

Radiohead - Kid A, Moses Somney - Aromanticism

앞날

안녕하세요, 엘리에서 ‘앞날’로 활동하고 블로그는 점진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활동 중인 유저입니다. KHL 쪽에서 먼저 제안을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매거진에 참여하게 된 만큼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Favourite Artists

Kendrick Lamar, Nas

Danny Brown, Tyler. The Creator

Favourite Albums

Tyler, The Creator - CMYGL, Nas - illmatic

Amy Winehouse - Back To Black

Kendrick Lamar - DAMN.



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매거진 외힙호의 에디터이자 디자인을 담당하는 SNXO(산소)라고 합니다.

6월에 첫 국힙호가 발매된 후로 점점 성장하는 매거진을 보며 정말 뿌듯했는데요,

저는 아쉽게도 이번 9월호를 마지막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에디터 분들의 멋진 글들에 제 편집 실력이 누가 되진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응원과 격려 덕에 저를 비롯한 모든 팀원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에디터 분들과 편집장님들이 이끌어 가주실 HOM 매거진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ditor's Note by SNXO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매거진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해당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I
ø
æ
U
e
T
W
Q
H
A
v
š
Q
F
y
A
T
e
œ
ø
R
š
R
L
D
I
N
ø
f
P
T
œ
R
M
e
B

